
홍콩여행기


Est-ce que Hong Kong est la ville la plus sûre ?
Sheung Wan
Yuen Long Tin Shui Wai
7.21 [Live Spot] Manifeste
7.21 The final call from desperate people of HK
What happened on 2019.7.21 in HK?
Sheung Wan
Yuen Long
Hong Kong
999
Translated : Call failed
HOW THE POLICE TREATS PEOPLE DIFFERENTLY
"White Shirt Army" Attackers
Anti-Extradition Protestors
Les différentes approches de la police de Hong Kong...

0.

이 자료집은 내가 2019년 홍콩을 두 차례 방문하며 찍은 사진들과, 몇 년간 작업에 대한 생각들을 일부 엮은 것이다. 그래서 홍콩의 이야기 자체보다, 홍콩까지 가게 된 계기와 작업에 대한 고민들을 엮어보는 것이 더 크다. 만약 그에 아쉽더라도 이 자료집이 전적으로 내 개인의 목적으로만 제작되는 것을 언급하며 심심한 위로를 해본다. 또 홍콩에 대한 이야기는 대체로 위키 페이지와 후반부 박원식 학예사의 글에서 더 쉽고 자세하게 읽힐 것이다. 홍콩 방문은 나에게 분명 많은 의미와 경험을 안겨 주긴 하였지만, 그것을 특정 매체의 데이터로 만든 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특히 공익성을 염두 한 저널리즘의 관점과, 창작을 기반으로 하여 경험과 감각에 치우친 내 관점은 전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나는 그 선을 넘지 않고자 나름 노력하였으며 본 자료집에서 그 근거가 읽히길 희망한다.

책을 제작하며 광주 바림의 강민형 기획자와 인터뷰를 하였고 또 서울 인도박물관에 재직 중인 박원식 학예사에게 글을 부탁하였다. 먼저 강민형 기획자와의 인터뷰는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었다. 작가와 기획자가 만남을 통해 어떤 현상들을 논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임을 감안하면 단편적인 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탁월한 경험과 감각 덕에 내가 답답해 하던 어떤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박원식 학예사의 경우 근래 내가 만난 사람 중 꽤 흥미로운 역사 매니아인데, 그에게 처음 글을 부탁하였을 당시엔 이 자료집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었다. 그러나 역시 수준있는 학예사 답게 홍콩의 이야기를 잘 정리해주어 내 수고를 덜어주었다. 글을 받아 보니 아마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았을 텐데 본인의 직업적 입장 탓에 다소 말을 아낀 느낌이다.

다시 홍콩의 경우, 2020년 봄과 여름 다시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졌고 시위의 한 계기였던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었다. 조슈아 웡을 포함한 민주화 운동의 주요 인원들이 무력화 되고 있었지만, 중국의 더욱 강력해진 조치와 때마침 전세계에 몰아 닥친 코로나19로 인해 적어도 한국 언론에선 그리 비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았다.

2020년 새해를 맞아 홍콩을 방문하려던 계획은, 잠시 주춤하던 사이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코로나19는 그것대로 심각한 문제이기에 나는 일단 어딘가의 누구로서 기본적인 안전에 최선을 다했는데, 마침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본 자료집을 엮어보게 되었다. 감사함을 표하며 훗날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자료들과 생각들을 좀더 큰 규모로 엮어보고 싶다.

혹시나 책을 마무리하기 전, 홍콩에서 인연을 맺은 학생에게 메일을 보내 보았으나 아직 답은 오지 않고 있다.


Free HONG KONG
絕對的權力會帶來絕對的腐敗
香港人已經再無退路，唯有決志與抵權政府誓不罷立
FIGHT FOR FREEDOM
STAND WITH HK
We Stand With Hong Kong
aqua


NO
HK IS DYING

1.

중학생 때 한국 근대 소설집을 꽤 인상적으로 읽은 기억이 있다. 그중 김동인의 단편집들을 첫째로 좋아하였고 그다음은 최일훈의 〈광장〉이었다. 당시의 나이가 나이였던 만큼 소설의 시대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냐고 하면 그건 모르겠지만, 어떤 절대적인 상황 하에 인물들이 영향을 받으며 피치 못할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에 카타르시스 같은 것을 느꼈던 것 같다. 그러한 감각의 반영은 시간이 흘러, 이제 아침에 눈을 떠 YTN을 트는 지금의 습관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군중과 광장에 대한 관심은 2016년 촛불집회가 결정적이었지만 그전부터 신문의 헤드라인 등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작업으로 시도했던 것들만 떠올려도 인천 재개발 문제, 타임스퀘어와 집창촌의 갈등, 종로 일대의 다양한 시위 등 나름대로 관심과 경험은 일찍부터 시작되었는데, 다만 많은 창작가들이 그러하듯 창작을 하는 입장에서 비교적 일차원적인 관심 소재의 일환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나이를 먹어가고 어딘가에 누군가로 소속되어가며 그동안 조금 멀리서 느껴지던 관심의 관점이 어느덧 나의 삶 근처에서 벌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현 정부가 들어선 과정에서 더욱 그리하였을 것이다. 아마 요 몇 년간 사람들은 지지 정당을 떠나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뜻맞는 누군가들과 함께 이뤄내는 경험을 통해, 군중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권리인지 새삼 느꼈을 것이다. 특히 2016년 전후로 진보나 보수, 국수주의자와 노동자들, 청년과 노인 등 다양한 이들로 구성된 수많은 군중들을 볼 수 있었는데, 내가 관심을 가져오던 군중 안에서 나 역시 일부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면 그 움직임과 모습 속에서 예측 불가능하고 수없이 변화하는 유기적 사회와 거대한 이념들의 흔적을 발견하고는 한다.

2019년 홍콩을 방문하게 된 것은 이러한 기점에서, 마찬가지로 군중의 이야기를 추적하기 위해서였다. 민주화라는 단어에 대한 개인적 관심도 더하여, 만약 현상 자체에 대해 깊게 논한다면 특정 국가들이나 이데올로기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뭉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응원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프로페셔널 하게 라던가 객관적인, 차갑게 기계적인, 절대적 관찰자 같은 어구까지 쓰면서(물론 그것은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방문 목적에 거대한 의미나 야망 같은 것을 들이붓고 싶지는 않다. 특히나 홍콩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런 생각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2.

인터넷은 내게 첫번째 광장이었다. 조금 오그라드는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로 나를 포함한 80년대 전후 출생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이라 본다. 세대 이야기는 별도 팀프로젝트로 끌고 있어서 여기서는 간략히 서술하지만, 내가 속한 세대는 1990년대 후반, 광통신 인터넷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모뎀 세대의 인터넷 문화와 확연히 다른 것이었으며, 지금처럼 네트워크가 일상이 되는 것의 효시였다. 더 이상 통신 요금과 전화 회선의 간섭을 받지 않는 무제한 인터넷은 무한한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어떤 규범이나 통제가 자리잡지 않아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기였다.

그런 의미에서 일베의 등장도 처음엔 그러하였던 것 같다. 전문적인 견해를 설명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대 인터넷 집단의 갈등들이, 단순 너드들의 해프닝 정도가 아닌 사회적 현상과 여론으로 인식되는 것에 일베의 역할이 컸다고 나는 생각한다. 예부터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나름의 정치색을 띠며 갈등하는 일은 잦았지만, 그런 모습 자체가 당시엔 주류의 범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중들이 일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인터넷 문화를 소비하던 이들에게 일베는 초기부터 의문과 논란의 존재로 등장하였다. 물리적 세상에서는 그들을 너드 정도로 평가하고 말았지만, 그것은 분명 일찍부터 우익 보수적 성향을 넘어 비정상적인 모습마저 보여주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과거 나치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며 군중이 광기로 물들게 되는 과정들이 체감으로 와닿지 않았는데, 일베를 통해 생생하게 느껴 볼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어느 날 나는 열살도 안돼 보이는 꼬마들이 민주화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들었다. A라는 아이가 B라는 아이에게 장난을 치며 확 민주화 해버린다 라는 발언을 하였다. 해당 단어는 사전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긍지 같은 것이 아닌, 최악의 상황이나 엉망이 된 경우를 의미하는 일베의 유행어였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빨갱이 집단의 폭동으로 규정하는 일베 내 분위기에서 비롯한 것이었고 심지어 게시물의 반대 버튼에는 민주화라는 쓰여져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어린 아이들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 장난스러운 순간, 마치 야이 바보야 혹은 너 죽을래와 같은 표현으로 민주화 시켜 버린다 라는 표현이 어떠한 악의도 없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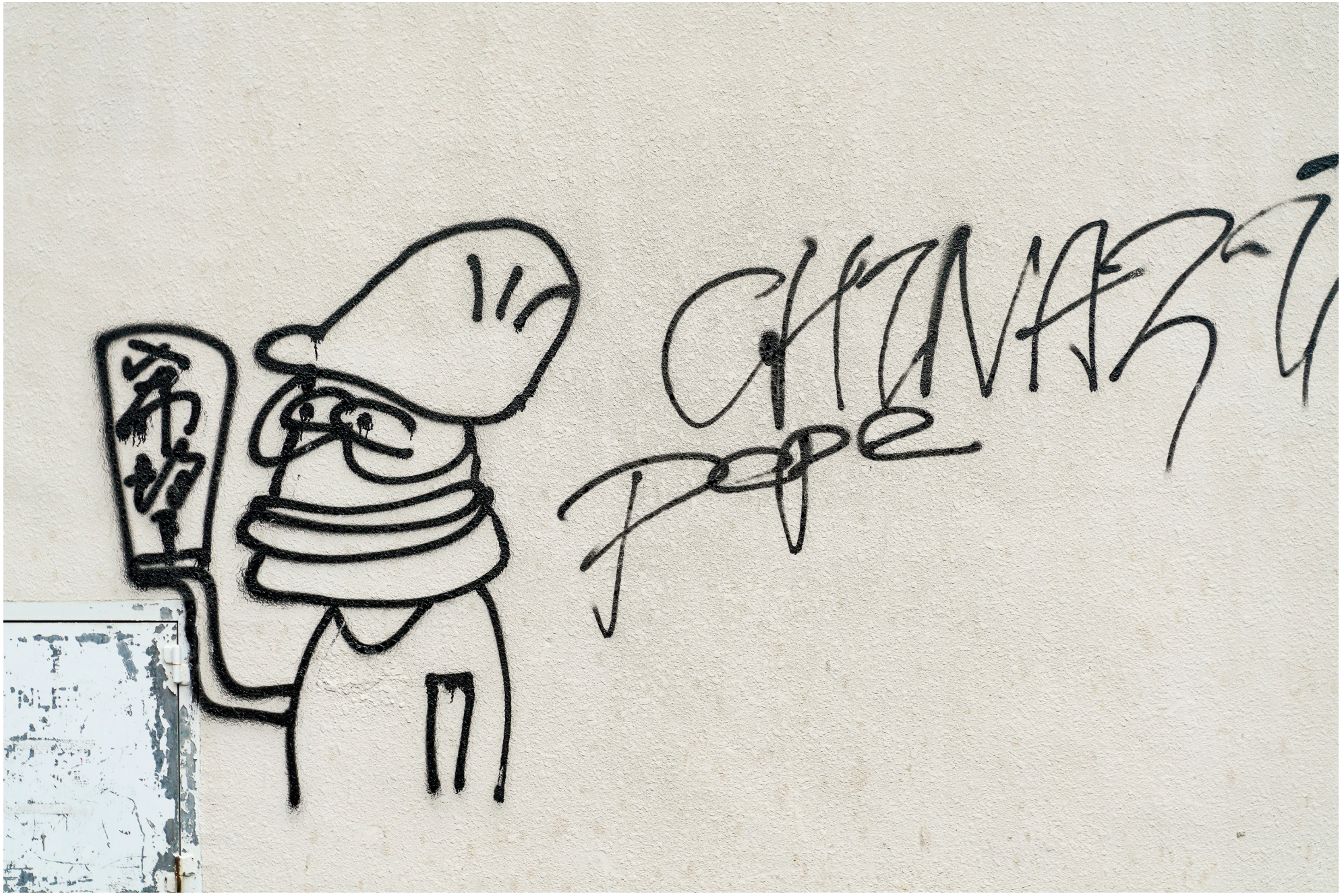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데올로기 대립의 흔적이 어떤 세대에게는 가벼운 유행어로 사용되는 것이었고, 그렇게 일베가 7~8년을 끌어오면서 만들어낸 밈들이 아이들을 통해 감정없이 내뱉어졌다. 만약 이것이 계속 고착화 되었다면 민주화의 역사적 의의는 커녕, 빨갱이의 폭동이란 단어를 후대는 아무렇지 않게 떠들어댈 지 모른다. 다행히 일베는 박근혜 정부와 함께 몰락하였고, 또 국민들의 윤리적 자정작용으로 일베식 표현들은 금기 시 되었다.

훗날 일베의 배후 세력들이 지목되던 도중 국정원 등이 연관되며, 특정 게시물의 경우에는 상부(아마도 특정 배후 세력)에서 제작 후 직접 하달하여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초창기 일베의 합성 게시물들을 떠올려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코알라나 기타 어리숙 해 보이는 이미지들과 합성시키거나,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희생자가 담겨 있는 관을 안고 울부짖는 유가족에 사진에 홍어


割分永袋春保錫
7-ELEVEN
ELEVEN
HONGKONGERS

택배라고 칭하는 등 그들의 모욕 행위에는 논리도 풍자도 아닌 오로지 저질만이 존재하였다. 심지어 배우 문성근 씨를 포르노 영화에 합성한 이미지와 국정원 ID와 연결되었다는 뉴스를 보고선 눈앞이 깜깜해질 지경이었다. 이런 조잡한 것들에 누가 영향을 받을까 하면서도, 결국 누군가에게 인터넷 밈, 조금 짓궂을 정도의 장난으로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들을 보며 나는 생각하길, 시민의 광장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필시 그것은 정치 드라마 같은 데에 나오는 품위 있는 슈트의 게임이기 보다 질 떨어지고 유치하며 설마 했던 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는 그런 것은 아닐까 싶었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왜 음모론에, 빨갱이 이론에,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북한의 김정일과 김정은을 찾는게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도 그렇듯 많은 이들이 인터넷을 활보하고 있지만, 잘 살펴보면 수많은 개인들이 소통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해놓고 정작 개인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로 모 포털은 극단적 보수, 모 사이트는 광적인 현정부 옹호 등, 스스로는 비공식이지만 각자 추구 이념들이 있어서 댓글 한번 잘못 달았다가 공격당하기 십상인 것이다. 그런 모습들은, 우연히 그러한 개인들이 모였기 보다 다양한 마케팅 방식으로 구축된 훌륭히 세뇌 된, 혹은 프로파간다 전략이 작용한 군중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념들 하에 각자가 가면을 쓴 채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믿지 않는 자를 아무렇지 않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충성심을 만들어 내는 어떤 것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다시 처음에 했던 말을 반복해서, 내가 마주하였던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광장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고는 결코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香港人
加油!
光復香港
時代革命

3.

장애인 등급제를 반대하는 투쟁 텐트는 비교적 근래까지, 짧지 않은 시간 광화문 역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근래까지 간간이 시위와 운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0년 어느 날은 그 시위의 규모가 무척 커져 격렬한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다. 날씨가 제법 추운 가을, 안국역 앞 인사동 북단으로 들어가는 큰 도로에서였다. 휠체어를 탄 이들이 반, 두발로 서있는 이들이 반이었고 상황은 매우 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들고 있는 캠코더의 프레임 가득 고함과 외침, 괴로움과 분노가 담기고 있었다.

닭장차라고 부르던가? 철망을 촘촘하게 두른 경찰 버스가 시위대를 압박하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시위대를 밀어내고 있었으며 나머지 삼면에는 방패를 든 경찰들이 버티고 있었다. 그 모습에 착즙기의 원리가 떠올랐다. 사방에서 온갖 고함이 들려왔고 하지 말라는 외침이 시위대 안으로 들려왔다. 나는 실제로 경찰이 이렇게 차량으로 압박하면서까지 시위대를 해산시키려는 것은 처음 봤던 지라 정신없이 그 광경을 찍고자 하였다. 바로 뒤에서 수많은 일반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차까지 동원하며 압박해도 되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상황은 극단적이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내 카메라를 든 오른손을 낚아챘고 방심했던 손은 이내 레슬링 기술이 걸리듯 시위대 안으로 말려들어갔다. 그리고 누군가가 덥석 멱살을 잡는다. 이 새끼 경찰이다!

두 눈이 사시인 얼굴이 내 앞에 보였다. 반 삭발한 두상에 분노로 가득한 표정이 보였고, 그는 이내 멱살을 움켜쥐고 시위대 안으로 나를 끌고 들어갔다. 그 손은 무척 억셌고, 너무 당황했던 나는 별 저항할 생각을 미처 못하였다. 아차 내가 너무 경계 안쪽으로 들어왔구나. 카메라 프레임에만 시선이 쏠린 체, 더 강렬한 장면을 잡기 위해 조금씩 안으로 비집고 들어간다는 게 온전히 시위대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요령이 좋지는 못했다.

이 새끼 경찰이라고 경찰이 우리를 찍고 있다고. 분명 키도 덩치도 나보다 작은 게 분명한, 거기다 몸도 성치 않는 인물이 나를 끌고 들어가는데, 나는 당황한 체로 일단 저는 그냥 학생이에요 라고 연거푸 외쳤다. 종종 이런 현장에 있다 의심이라도 받게 되었을 때 학생이라 하고 넘어간 경험들이 먼저 튀어나온 것이다. 학생이에요 학생 아저씨 이거 놓으세요 라고. 그랬더니 학생증을 내놓으라고 했다. 손을 놓으셔야 지갑을 꺼낼 거 아니에요. 그러자 안된다고, 너는 학생이 아니라고. 당시에 사실 학생증도 없었지만 머릿속으로는 이 손을 풀게끔 할 거짓말을 만들기 위해 정신이 없었다. 저 멀리서 경찰 버스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압박을 하고 있었고 주변의 시위대들은 그것을 당하며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 몇 걸음 옆에 경찰들이 서있었지만 모른 척 하고 있었다. 무척 초조했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 도와주려 하였다가 더 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어 그랬을 것 같다. 아니면 단순히 외면했을 지도 모르지만.

이제 내게 메모리카드를 내놓으라고 외쳤다. 그 말을 듣자 마자 재빨리 카메라를 코트 안으로 숨겼는데, 처음엔 내가 가방에 넣은 줄 알고 바로 옆에 있던 시위꾼이 가방을 낚아 채더라. 열어보고 없으니 떨어뜨렸는데, 기방은 곧 수많은 다리들 사이로 사라지고 말았다. 내 가방이라고 외칠 새도 없이 나는 한 손으론 멱살을 풀고자 하였고, 또 다른 손은 품 안으로 캠코더를 숨기고 있었으나 이윽고 캠코더를


警告 催淚煙
WARNING
TEAR SMOKE
7-ELEVEN

든 손이 붙잡혔다. 어딘가에 거세게 부딪쳤다. 아픈 건 아픈 거고 무서운 건 또 무서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카메라를 놓을 수가 없었다.
그때, 어이 아저씨 학생이라자나 놔 놔 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 내 뒤편에서 패딩을 입은 아저씨 둘이 등장하였는데, 밖에서 나를 구하려 몇 미터의 인파를 해치고 들어온 것이다. 덩치 좀 있고 머리가 벗겨진 아저씨 둘이 내 멱살을 잡은 이를 진정시키고 있었다. 학생이라고 하잖아 이러면 안된다고. 그 순간 멱살 잡힌 손이 잠깐 풀렸는데 그러자 마자 아저씨는 그 사람을 붙잡았고, 다른 아저씨가 나를 감싸며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밀어내 주었다. 고맙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나는 다급히 시위대를 뚫고 빠져나왔다. 지금이야 생각하면 두 분에게 감사인사라도 해야 했는데, 너무나 당황하다 못해 겁나고 흥분한 나머지 그저 멀리 떨어질 생각만 급급했다. 인파들 사이로 한참을 파고 들어가고 나서야, 뒤를 돌아볼 생각도 없이 카메라부터 살폈다. 내 중지 손톱과 함께 카메라는 부서져 있었다. 카메라 한쪽 면이 완전히 뜯어져 나갔는데 무엇에 부딪쳐 깨진 건지 혹은 떨어져 나간 건지, 아무튼 카메라가 그렇게 박살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이날은 사실 내가 참여하는 단체전 오프닝 날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본래 계획은 시위를 촬영하다 6시쯤 되어서 전시장으로 이동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도망치고 나서 내 꼴을 보아하니 가방은 사라졌고 손톱은 깨져 피가 났으며, 코트는 가운데 단추가 뜯어져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카메라나 가방을 잃은 분노가 올라왔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대 치고 이렇게 싹 빠져 나왔어야 했는데 상상하며 씩씩거리고 욕지거리를 하였는데, 웃기게도 그러다가 막상 오프닝 행사에 참석하고 나니 이게 또 무슨 경험이겠냐고 고양감이 치솟아 영웅담처럼 자랑을 하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한참을 떠든 다음, 뒤풀이 자리가 끝나고 나와 일행들이 식당 입구에 서있는데 누군가 손을 내밀고 터벅터벅 걸어왔다. 누구지 하고 봤더니 거짓말처럼 아까 내 멱살을 잡았던 그 사람이다. 반 삭발에 방향이 다른 두 눈, 고동색 낡은 코트 등을 잊을 수 없었는데 아까는 보지 못했던 시각 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내게 보였던 분노 치밀어 오른 표정은 온데 간데 없었고 되려 동정심을 유발하는 표정으로, 우리 일행에게 집에 갈 차비를 잃어버렸다면서 돈을 달라 하더라. 나를 알아보지 못함이 분명했다. 일행이 거절하자마자 그는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아까의 흥분감, 그리고 고양된 감정이 순식간에 팍 식어버렸다. 그 사람이 어느정도 가고 나서야 나는 씨발이라 외치고서 저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 아까 내 멱살을 잡은 사람이 저 사람이었다구요 그를 가리키며 일행에게 말하였다. 일행은 내가 농담이라도 하는 줄 알고 에이 설마 하며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럼에도 그 중에 한 명이 내게 말하기를, 만약 저 사람이 맞다 하더라도 카메라를 들이댄 건 당신이었다면서,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멱살 잡힐 일도 없었을 것 아니냐고 하였다. 충분히 맞는 말이어서 차마 할 말이 없었다.


警 察
POLICE


反送中
反送中

4.

2017년 3월 탄핵 선고가 발표되었을 때, 나는 그 광경을 광화문 광장에서 보고 있었다. 광장 내 광화문의 바로 앞과 가운데로 크게 두 개 내지 세 개의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었고, 판결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적당한 군중들이 모여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나 이외에도 꽤 많은 이들이 캠코더와 카메라 등을 준비하여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다. 각자 어떤 입장이든 간에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은 매한가지리라. 이윽고 울리는 탄핵 선고에 다들 박수를 치며 함성을 질렀다. 광장에는 탄핵 찬성파만 모여 있는 듯 했다.

이윽고 이동한 종로 인근, 인사동에서 안국으로 넘어가는 방향은 사람들이 모여 소리를 지르는 것이 흡사 축제 분위기 같았다. 도로 한 켠을 장악한 군중은 크리스마스 아침 아이들의 표정처럼 함박웃음이 가득하였는데, 표현 그대로 음악을 틀고 춤을 추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축하한다 외치고 있었다. 사실 광화문 광장에 인파가 생각보다 많았던 것은 아니어서 아무래도 평일이다 보니 적은가 보다 했었는데, 갑자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왔나 싶을 정도였다. 캠코더를 들고 군중을 지나가는데 어떤 이들은 렌즈 앞에 얼굴을 불쑥 들이밀며 함성을 지르기도 하였다.

안국을 지나쳐 낙원상가 쪽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좋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윽고 낙원상가를 지나치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판결에 격분하여 자해를 시도하였던가 혹은 사고였던가, 아무튼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이다.

나는 조금은 막연하지만, 광화문부터 인사동 북단까지는 젊은 군중이고 낙원상가부터 을지로까지는 중장년 군중의 지역으로 구분하곤 하였다. 이는 다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거점의 구분이기도 하였다. 물론 대기업 빌딩 밀집 지역과 구도심이라는 지역적 차이도 있을 테지만. 하여튼 그날 낙원상가, 을지로 등의 분위기는 영 좋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는 노인들, 말세야 말세 하면서 어쩜 좋냐고 발을 동동거리는 아주머니도 있었다.

시청 광장에는 해병대 전우회가 캠프를 치고 있었는데 군복을 입은 노인들이 분대처럼 삼삼오오 짝을 지어 군중을 이루고 있었다. 내가 카메라를 들고 광장에 들어서는 것을 보더니 그 중의 한명이 흥분해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야상을 입고 있어 우락부락한 모습에 조금 주춤하였는데, 바로 옆에서 일행인 듯한 이가 말리더라. 그러고선 나에게 학생 여기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 돌아가요 라고 말하였다. 나는 광장에는 누구든 들어올 수 있어요 라고 항변만 하고선 소심하게 자리를 떴다.

페이스북 메시지로 당신 사귄 외국인 친구가 한국은 오늘 같은 날 왜 파티를 안 하냐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서울은 아직 파티를 할 분위기는 아니야 라고 답한 기억이 난다.


DEMOCRACY
#ChinaziNOW
Give me Democracy
Give me Death
NO Extradition
To #Chinazi
CHINA!!!


Hoi Bun Road
123 海濱道 133-153
vita
ARMY

5.

탄핵의 과정과 여부 등을 떠나, 나는 촛불 집회 당시의 기억이 무척 즐거웠다고 떠올린다. 비유하자면 스포츠 경기 중 이기고 있는 팀의 응원단에 속한 기분이었는데, 개인적 정치 성향과 관련된 것도 없지는 않겠지만, 또 그와 별개로 촛불 집회가 퍼레이드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다양한 젊은 집단들의 깃발이 나부꼈고 그 중에는 한국고양이노동조합, 새우만두노조 등 익살스러운 패러디 깃발들도 있었다. 직접 만든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이들도, 재미있는 복장으로 시선을 끄는 이들도 있었다. 물론 그 목적 자체는 당시 정권에 대한 불만과 탄핵의 요구였기에 가끔 거칠어지는 지점도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흡사 과거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폭력적인 그것과는 달랐다. 가족끼리 나들이 하듯, 연인이나 친구들끼리 깔깔거리며 함께하였다.

언젠가 언론에서 이를 견제하기 위함인지, 유모차를 밀고 시위에 나선 젊은 엄마의 모습 등을 부각시켜 몰지각하거나 무책임한 시위대처럼 표현한 적이 있었다. 대체로 근대까지의 시위라고 하면 투쟁과 갈등의 험악한 분위기를 먼저 떠올리다 보니 시위대에 아이를 대리고 나온다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도 해석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려할 만한 혹은 누군가를 책망할 만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고 대체로 질서정연하고 건강한 분위기가 촛불 집회의 기억이었다. 오히려 반발로 나온 태극기 부대들이, 아마 주력 인원들의 나이 탓이겠지만 좀더 투박하고 거칠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무튼 이렇게 촛불 집회가 대체로 안전하게 마무리 된 것에는 참여자들에게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야심이나 야망 같은 것보다 최소한의 부담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또 시위에 참여함으로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덕분 아니었을까.

그러나 탄핵이 결정된 날 이후부터 광화문 광장의 주말은 태극기 부대의 것이었다. 물론 간간이 촛불을 바탕으로 했던 진보 진영의 집회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태극기 부대의 인내심에는 상대가 안 된 것 같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았던 촛불 진영보다 중장년 세대만의 장점이 발휘되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감히 표현해 보건데, 이긴 쪽보다 진 쪽이 더 이를 악무는 법이라던가.

태극기 부대는 탄핵이 결정되고 난 직후에는 잠깐 수가 줄었던 것 같았는데, 실제로 17년 여름 까지는 광화문 광장 자체보다는 세종대로 사거리나 보신각 일대에서만 크고 작은 집회들이 보였었다. 기억나는 것이 한여름 땡볕 밑에서 뒤따르던 경찰들보다 시위 인원이 적어 보이던 때도 있었다. 그 광경을 보고 노인들 때문에 애먼 경찰들이 한여름에 고생한다며 이제 태극기 부대도 보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광복절이 되면서 다시 급격히 인원이 늘어나는데, 특히 매년 광복절에는 대규모의 조직적인 모습을 다시 보여주었다. 방송차와 대형 화면, 공연용 무대와 스피커까지 동원하여 유명 연예인 콘서트 뺨치는 스케일을 보여 주었다. 이는 매년 더욱 그 크기를 갱신하고 있는 중인데 코로나19로 난리인 올해도 몇 번은 그리한 것이다. 특히 전광훈 목사를 필두로 하여 기독교 세력이 주력이 되면서 토요일 오후 광화문 광장은 아멘 소리가 그치질 않았다. 교통 체증 또한 더욱 심해졌는데 세종대로 사거리의 토요일은 버스로 지나가지 못하는 곳이 되었고, 또 5호선 광화문 역은 태극기 인파로 가득 채워졌다. 광장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는 줄이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 대기


傻逼解放軍下来啦
光復香港
7-ELEVEN.
7-ELEVEN.
7-ELEVEN.
7-ELEVEN.

줄과 맞먹었다. 그밖에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 박근혜와 트럼프의 대형 인쇄물, 해병대 전우회 깃발 등을 매주 보게 되는 것이다.

또 생각해보면, 2017년부터 2018년 초반까지의 시위는 지금과는 뭔가 달랐던 것이 있었다. 태극기와 보수라는 표제어를 제시하는 것은 같지만, 기존과 다르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세력들이 산발적으로 집회를 하였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한, 스스로 패미니스트라고 자칭한 여성 집단이었다.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적당한 규모로 모인 그들은 연신 박근혜가 탄핵 된 것은 여성이라 그렇게 된 것이라며, 그로 인해 자신들의 꿈 또한 짓밟혔다는 내용의 선언을 연거푸 토해냈다. 나는 앞에서 촬영을 하면서, 저렇게 주장할 것이면 왜 얼굴을 가리고 공개하지 않는가 의아해 하며, 그들이 온전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았었다. 또한 매번 단골인 해병대 전우회를 포함한 역전의 용사들 집단도 있었다. 군복 집회의 경우 나는 2011년부터 꾸준히 보아오고 있는데, 아마 그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매년 등장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해 주었다. 대한애국당이라는 신진 당 또한 기억에 남는다. 유명 보수 평론가를 대표로 하여 그전까지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의 얼굴이었던 이들을 맹비난하였는데, 광화문을 꽤나 지켜봐 왔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보수할 테니 좀 도와주십쇼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았다.

아무튼 19년도 이후 근래, 교회 등을 기반으로 하여 문재인 하야를 목표로 두고 있는 태극기 집회들은 대규모 조직에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전, 17년 18년은 일종의 혼란의 시기가 아니었을까 구분해본다. 지금 생각해 보았을 때 만약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일베의 보수를 대신할 어떤 새로운 세력을 찾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을까. 그만큼 당시에는 보수 집회라 하더라도 서로 뭉치지 못하였으며, 또 중심 세력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시기였기에 서울시 차원에서 화분 바리케이트를 치는 등 어느 정도 대처와 무관심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고로 나는 17, 18년을 소수 보수 세력의 춘추전국, 아나키스트적 운동 시기라고 나름 정의를 내려보는데, 이때는 박근혜를 석방하라라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표제어만이 존재했었고 당연히 그것은 일반에게 수용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불특정 테러의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지금도 종로의 골목길 어딘가 혹은 낡은 화장실 구석에서 사기 탄핵 무효라고 휘갈겨 쓴 문구들을 볼 수 있다.

비교적 근래인 2020년 초 다시금 거대한 보수의 조직적 움직임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다. 앞서 설명한 데로 대형 예배 콘서트의 형식을 띄고 있어 다수의 대형 스크린과 무대장치로 목사들이 돌아가며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과 함께 문재인을 외치면 수많은 군중들이 아멘과 함께 하야를 외쳤다. 퍼포먼스가 다시 거대해졌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광복절 정도를 제외하고는 앵콜 공연은 몇차례 선보이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규모의 플랫폼 구축과 집회자들의 동원을 보면서, 어떤 세력이 배경이 되든 간에 이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RED SQUARE
HECNY
HN Hay Nien
ChiNazi
CHI-Nazi
CONSTRUCTION INDUSTRY
If we burn You burn with us


Hoi Bun Road
海濱道
RECYCLE
回收
8785
警
PO

6.

2015년 나는 인디아트홀 공의 작은 실험공간에서 창작활동의 기회가 있었다. 전시라는 개념보다 부담 없는 창작공간의 지원 개념이었고 내게는 약 한달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 전시(일단은 완성을 하고 관객을 초대했으니)에서 당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야기, 아일란 쿠르디 Aylan Kurdi 라는 3살짜리 아이에 대해 작업을 하고자 하였다. 아일란 쿠르디는 시리아의 난민으로 내전을 피해 가족과 유럽을 향하던 도중, 결국 타던 배가 침몰해 터키 앞바다에서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고 또 그렇게 세상의 이슈를 받게 되었다.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어머니와 5살 형 또한 같이 사망하게 되었단다.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아일란 쿠르디라는 이름을 구글에 검색하였을 때 나온 결과였다. 수많은 이미지들, 웹 브라우저의 특성 상 수많은 이미지 타일들에서 아일란 쿠르디의 주검과 울부짖는 아버지의 사진으로 가득했다. 마치 누워있는 인형처럼, 아이는 빨간 티에 파란 바지를 입은 채로 해변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딱 가운데 타일 하나에서 생전 웃는 아일란의 얼굴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조금 이야기가 세어 나가지만 나는 이 시기 남서울 미술관에서 보게 된 세월호 관련 작업들에 모종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와중이었다. 세월호는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 큰 충격적 사건이기에 분명 많은 이들이 그 형상을 담아내고자 하였을 것이고 나조차도 스케치하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하나의 사건으로 그려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였었다. 그러나 이것이 형상화 되었을 때, 전시장에 대형 그림과 조각으로 보이게 되었을 때. 저렇게 번듯하게 가라앉는 배의 형상으로 온전히 그려낼 수 있을까, 무엇보다 창작을 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무게감에 그래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극에 크고 작음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슬픔과 비극, 부조리와 뒤틀림 앞에서 나는 그것을 온전히 작은 사각형 안에 담아낸다는 것에 묘한 혐오를, 특히나 그런 사회적 이슈에 갈망하고 이야기를 지어내려는 창작가의 본성에 대해 어떤 먹먹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수많은 자신의 죽음 사이에서 홀로 웃고 있는 아일란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금 그 감정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아일란의 이야기를 소재로 창작을 하였고 관객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불쌍하잖아요 라고 호소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먼저 아이 크기만한 곰인형을 구해 아일란 쿠르디처럼 눕히고 허공에 떠있게 한 다음 키치스러운 날개를 달았다. 그것은 led라이트로 빛나고 있었다. 인형의 주변으로는 금줄로 바리케이트를 쳐 관객은 그것에 다가가지 못한 체 거리를 두고 관조하게 된다. 오른편에는 하얗게 덧칠한 캔버스가 걸려있는데, 그것은 그렸다가 지운 세월호의 밑그림이었다. 촛불을 장식하는 것도 잊지 않았고. 설명하기로는 시리아 난민 아이의 비극적 죽음, 죽음의 모습만을 부각시키는 비극적 언론,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 세월호의 그림을 과감히 포기한 나의 작가적 됨됨이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오프닝(관객을 초대하기) 전날에야 나는 조금 솔직해질 수 있었다. 전날 밤까지 참혹한 기분은 가시질


CARRIE ALWAYS FUCK MT
PRESS

않았다. 많은 예술가들이 그 스스로를 광대에 비유하듯이 나 역시도 종종 그러한 비유를 들고는 하였지만, 비극과 대중의 관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순진한 바보처럼 구는 모습이 허무하고 혐오스럽기만 하였다. 비극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슬픔을 통해서 나는 관객에게 거부할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하였다.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이 나누어지는 상황에서 서술의 목격자이자 배심원인 관객은,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체로 보편적인 방향의 올바름을 이야기 하게 되는 것이다. 작업에 대한 비난은 안타까운 사건의 상징화와 그것에 대한 창작가의 숭고한 영혼을 비난하는 것처럼 여겨질 테니. 나는 그런 모습을 훗날 국민적 히트였던 영화 〈귀향〉에서 특히 느끼게 된다.
어쨌든 끝내 관객들을 초대하기 전날 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담배 한 개비에 불을 피우며 아일란 쿠르디와 그 아이를 둘러싼 상황, 그리고 그것을 다루려는 내 자신에 대한 짧은 글을 한편 썼다. 그리고 그것을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전시와 작업의 구성을 떠나, 그것이 내가 스스로의 역겨움을 달래기 위한 소심한 후회였을 것이다. 관객들이 찾아왔고 그중에는 평소 내가 좋아하고 인정하는 작가가 한마디를 남겨주었다. 실망했다고. 그나마 이 영상 한 편만 크게 틀어 놨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라며.

다음해 관람한 2016년 두산아트랩 장현준의 〈몸으로 거론한다는 것〉에서, 내가 느낀 그 지점들이 비슷하게 언급되었다. 〈몸으로 거론하다는 것〉은 1인 극으로, 무대 위의 연극인으로서 비극적 상황을 목도하며 느끼게 되는 복합적 감정을 다시금 무대 위에 표출하는 아이러니를 담았다. 배우는 직설적으로 제 4의 벽을 향해 자신이 무대 위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물어보았다. 이것은 결론적으론 무대 위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소재로서 물음이었지만, 어떠한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보이는 창작자의 입장과 사회적 비극 앞에서 그저 읊조리고 있을 뿐인 한 개인으로의 감정_예컨대 무력함 이나 허무함 등을 직설적으로 묻고 갈등하였다. 공연이라는 매체적 특성상 그 고민과 갈등, 개인의 양심적 가책은 관객들에게 쉽사리 전파되는 것이다. 나는 저렇게 세련되게 이야기하지 못하였을까 크게 아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난 기억이 난다.


NoT EVE NUke CaN DiSiN Tegra teUS

6-1.

앞선 글, 인디아트홀 공에서 작업을 공개(관객을 초대)하기 바로 전날 밤. 스스로의 심경변화를 거치며 간단한 글귀를 작성하였다.

갓 태어난 아기가 양수 밖 세상에 두려움을 느끼듯
나 역시 이성이란 것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아기가 성장하며 그렇듯 나 역시 무뎌져만 가고
지금처럼 손 안에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때에
많은 사건들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곤 한다.
헤매다 보면 수많은 비극들을 스쳐갈 뿐이다.

아일란 쿠르디의 죽음이 그러하였다.
부정하고 싶지만 아이의 죽음은
흔해선 안되지만 흔한 난민의 죽음이었다.
저 멀리 누군가의 죽음처럼
스쳐가는 이야기이자 이미지였을지 모른다.

구글에 아이 이름을 검색하였더니
수많은 아일란의 시체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빨간 티에 파란 바지를 입은 아이는
다양한 각도로 죽어 있었는데
유독 그 아이가 해맑게 웃는 사진 한 장이 중간에 껴 있었다.
아일란은 그 수많은 자신의 죽음 한가운데에서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인가.
의심부터 들었다. 단순히 아이가 불쌍해서?
혹은 일, 예술을 한다는 것 때문일까.
나는 그동안 많은 이의 죽음 위에서
춤추는 망령이었기 때문이다.


不准標貼
No Posting
POLITE
7.21
反對
林鄭暴政
平反暴動
撤銷檢控
Condemn police for firing on protestors
政府總部
Central Government Offices
添馬公園
Tamar Park
海濱長廊
Promenade
添馬露天劇場
Amphitheatre
社工不受協
抗爭無得做
心中無鬼
何懼修例
時代革命

비극은 애도와 애용 사이에서 내 손에 매달려 있다.
아니 나뿐만이 아닌 모든 이의 손에,
눈동자에, 마음 한 켠에 붙들린 체로
죽은 이들보다 죽은 이들을 비추는 불빛에
더 애처롭게 갇혀 있었다.

애도와 애용 사이에서 죽은 아이,
진정 아일란은 나에게 무엇의 이름이었는가.

망각의 늪에서 무뎌지는 나에게 슬픔을 마시는 일은
웃는 아이의 얼굴을 보는 일은 참 혼란스럽다.
그저 내가 슬퍼하고 있기를 바랄 뿐이다.


社工不受協
抗爭無得怯
政府總部
Central Government Offices
添馬公園
Tamar Park
海濱長廊
Promenade
添馬露天劇場
mar Amphitheatre
FREE HK
標貼
Post No Bill
請勿塗鴉
No Graffiti
MY FRIEND
敵進我退 敵退我進
來如風 去如電
馬道立
救香港
馬道立
救香港
馬道立
救香港
反對
林鄭暴政
公民黨
CIVIC PARTY
民主黨
平反暴動
撤銷檢控
Condemn police for firing on protesters!
7.21 港人悲歌
認清事實 了解真相
7.21
香港人 不認輸
時代革命
不撤不散
只有暴政
成功在望
堅持抗爭
香港加油
HK加油
自由戰鬥
光復香港
時代革命
Keep Shining HK!
Be Safe
LIAR!!


撤一貼十
香港人加油
香港人諗事
當家作主
不要承認這政權
香港加油
HK加油
Free HK!
大家加油
退回
遊行
光復香港
時代革命
Full Gear Shopping Day
SELFRIDGES
memo
7.28 中上環
7.28 中上環
警包庇元朗恐襲
上環濫射橡膠子彈
香港加油
加油
撤回惡法
Support
Never Give Up
GO HK
Love HK
Stand with HK
Hong Kong
Peace
Love
Hope
Pray for HK
Keep Calm
Fight for Freedom
Stand with Hong Kong
Save Hong Kong
Free Hong Kong
Democracy
Liberty
Justice
Unity
Courage
Wisdom
Resistance
Revolution
Five Demands
Not a Riot
Police Brutality
Tear Gas
Rubber Bullets
Water Cannon
Umbrella
Yellow Ribbon
Blue Ribbon
Black Bloc
Lennon Wall
Sticky Notes
Post-it
Graffiti
Protest
Rally
March
Sit-in
Strike
General Strike
Civil Disobedience
Non-violence
Solidarity
Support
Thank You
Sorry
Help
SOS
Emergency
Hospital
Ambulance
Doctor
Nurse
Medic
First Aid
Bandage
Medicine
Pain
Injury
Blood
Death
Funeral
Memorial
Candle
Flower
Prayer
God
Jesus
Christ
Church
Bible
Heaven
Hell
Angel
Devil
Sin
Forgive
Love
Hate
Fear
Hope
Faith
Trust
Lie
Truth
Secret
Spy
Surveillance
Camera
CCTV
Facial Recognition
Tracking
Data
Privacy
Internet
Wifi
Bluetooth
Phone
Battery
Charger
Cable
Screen
Keyboard
Mouse
Computer
Laptop
Tablet
Smartphone
App
Software
Hardware
Virus
Hack
Password
Login
Logout
Delete
Edit
Save
Load
Upload
Download
Share
Like
Comment
Follow
Unfollow
Block
Report
Spam
Troll
Meme
Viral
Trend
Hashtag
Tweet
Retweet
Post
Blog
Vlog
Podcast
Stream
Live
Record
Play
Pause
Stop
Rewind
Fast Forward
Volume
Mute
Loud
Quiet
Noise
Silence
Music
Song
Lyrics
Melody
Rhythm
Beat
Drum
Guitar
Piano
Violin
Flute
Trumpet
Saxophone
Singer
Band
Concert
Festival
Party
Dance
Club
Bar
Drink
Beer
Wine
Cocktail
Whisky
Vodka
Rum
Gin
Tequila
Champagne
Cheers
Toast
Drunk
Hangover
Sober
Addiction
Rehab
Therapy
Counseling
Psychology
Psychiatry
Mental Health
Depression
Anxiety
Stress
Trauma
PTSD
Suicide
Self-harm
Cutting
Eating Disorder
Anorexia
Bulimia
Obesity
Diet
Exercise
Gym
Yoga
Meditation
Mindfulness
Relaxation
Sleep
Insomnia
Nightmare
Dream
Wake Up
Alarm
Clock
Watch
Time
Date
Calendar
Schedule
Appointment
Meeting
Conference
Presentation
Speech
Interview
Job
Career
Boss
Employee
Salary
Wage
Tax
Bank
Money
Cash
Credit Card
Debit Card
Loan
Debt
Bankrupt
Poor
Rich
Wealth
Inequality
Capitalism
Socialism
Communism
Democracy
Dictatorship
Monarchy
Republic
Government
Politics
Politician
Election
Vote
Campaign
Party
Policy
Law
Court
Judge
Jury
Lawyer
Prison
Jail
Crime
Criminal
Murder
Kill
Gun
Knife
Weapon
War
Peace
Soldier
Army
Navy
Air Force
Military
Base
Bomb
Explosion
Fire
Flame
Smoke
Ash
Burn
Water
Ocean
Sea
River
Lake
Rain
Storm
Flood
Drought
Earthquake
Volcano
Tsunami
Hurricane
Tornado
Lightning
Thunder
Cloud
Sky
Sun
Moon
Star
Planet
Earth
Space
Universe
Alien
UFO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Physics
Chemistry
Biology
Geology
Astronomy
Medicine
Health
Disease
Virus
Bacteria
Cancer
Heart
Brain
Lung
Liver
Kidney
Stomach
Intestine
Bone
Muscle
Skin
Hair
Eye
Ear
Nose
Mouth
Tooth
Tongue
Hand
Foot
Leg
Arm
Head
Body
Face
Smile
Laugh
Cry
Tear
Sad
Happy
Angry
Fear
Surprise
Disgust
Love
Hate
Like
Dislike
Good
Bad
Right
Wrong
True
False
Yes
No
Maybe
Question
Answer
Ask
Tell
Say
Speak
Listen
Hear
See
Look
Watch
Read
Write
Draw
Paint
Color
Black
White
Red
Blue
Green
Yellow
Orange
Purple
Pink
Brown
Gray
Silver
Gold
Metal
Wood
Stone
Glass
Plastic
Paper
Cloth
Leather
Fur
Feather
Bone
Shell
Rock
Sand
Dirt
Mud
Grass
Tree
Flower
Plant
Forest
Jungle
Desert
Mountain
Hill
Valley
Cave
Island
Continent
Country
City
Town
Village
Street
Road
Highway
Bridge
Tunnel
Building
House
Home
Apartment
Room
Door
Window
Wall
Floor
Ceiling
Roof
Stairs
Elevator
Escalator
Garage
Basement
Attic
Kitchen
Bathroom
Bedroom
Living Room
Dining Room
Office
School
University
Library
Museum
Gallery
Theater
Cinema
Restaurant
Cafe
Hotel
Airport
Train
Station
Bus
Car
Bicycle
Motorcycle
Boat
Ship
Plane
Helicopter
Rocket
Satellite
Robot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Data Science
Big Data
Cloud Computing
Internet of Things
Blockchain
Cryptocurrency
Bitcoin
Ethereum
Wallet
Exchange
Trading
Stock
Market
Economy
Recession
Depression
Inflation
Deflation
Interest
Mortgage
Insurance
Pension
Retirement
Investment
Portfolio
Risk
Reward
Profit
Loss
Budget
Expense
Income
Revenue
Asset
Liability
Equity
Dividend
Share
Bond
Fund
Hedge Fund
Private Equity
Venture Capital
Startup
Entrepreneur
Innovation
Disruption
Digital
Analog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Mixed Reality
Metaverse
Avatar
Game
Gaming
Esports
Player
Team
Coach
Sport
Football
Basketball
Baseball
Soccer
Tennis
Golf
Swimming
Running
Cycling
Boxing
Wrestling
Martial Arts
Karate
Judo
Taekwondo
Kung Fu
Tai Chi
Yoga
Pilates
Fitness
Gym
Weight
Muscle
Cardio
Endurance
Strength
Flexibility
Balance
Coordination
Speed
Agility
Power
Stamina
Recovery
Injury
Rehabilitation
Physiotherapy
Chiropractic
Acupuncture
Massage
Alternative Medicine
Traditional Medicine
Herbal Medicine
Homeopathy
Naturopathy
Holistic
Wellness
Prevention
Vaccine
Immunity
Allergy
Asthma
Diabetes
Hypertension
Stroke
Heart Attack
Cancer
Tumor
Chemotherapy
Radiation
Surgery
Transplant
Donor
Organ
Tissue
Cell
DNA
Gene
Genetics
Evolution
Species
Animal
Mammal
Bird
Fish
Reptile
Amphibian
Insect
Spider
Worm
Bacteria
Virus
Fungus
Plant
Tree
Flower
Fruit
Vegetable
Grain
Meat
Dairy
Egg
Milk
Cheese
Butter
Bread
Rice
Noodle
Pasta
Soup
Salad
Sandwich
Pizza
Burger
Fries
Chicken
Beef
Pork
Fish
Seafood
Shrimp
Crab
Lobster
Oyster
Sushi
Sashimi
Ramen
Dim Sum
Curry
Spice
Salt
Sugar
Pepper
Sauce
Soy Sauce
Vinegar
Oil
Olive Oil
Butter
Margarine
Cooking
Baking
Frying
Boiling
Steaming
Grilling
Roasting
Microwave
Oven
Stove
Pot
Pan
Knife
Fork
Spoon
Chopsticks
Plate
Bowl
Cup
Glass
Mug
Table
Chair
Sofa
Bed
Pillow
Blanket
Curtain
Carpet
Lamp
Light
Switch
Socket
Plug
Wire
Battery
Charger
Phone
Computer
Laptop
Tablet
Screen
Keyboard
Mouse
Printer
Scanner
Camera
Microphone
Speaker
Headphone
Earphone
Bluetooth
Wifi
Internet
Website
Email
Message
Chat
Call
Video Call
Conference Call
Meeting
Schedule
Calendar
Reminder
Alarm
Clock
Watch
Time
Date
Year
Month
Week
Day
Hour
Minute
Second
Morning
Afternoon
Evening
Night
Midnight
Noon
Today
Tomorrow
Yesterday
Past
Present
Future
History
Memory
Remember
Forget
Learn
Study
School
University
Library
Book
Textbook
Notebook
Pen
Pencil
Eraser
Ruler
Paper
Homework
Exam
Test
Grade
Teacher
Student
Class
Lesson
Lecture
Tutorial
Seminar
Workshop
Conference
Research
Thesis
Dissertation
Degree
Diploma
Certificate
Graduation
Ceremony
Cap
Gown
Scholarship
Tuition
Fee
Loan
Debt
Job
Career
Boss
Employee
Salary
Wage
Tax
Bank
Money
Cash
Credit Card
Debit Card
Loan
Debt
Bankrupt
Poor
Rich
Wealth
Inequality
Capitalism
Socialism
Communism
Democracy
Dictatorship
Monarchy
Republic
Government
Politics
Politician
Election
Vote
Campaign
Party
Policy
Law
Court
Judge
Jury
Lawyer
Prison
Jail
Crime
Criminal
Murder
Kill
Gun
Knife
Weapon
War
Peace
Soldier
Army
Navy
Air Force
Military
Base
Bomb
Explosion
Fire
Flame
Smoke
Ash
Burn
Water
Ocean
Sea
River
Lake
Rain
Storm
Flood
Drought
Earthquake
Volcano
Tsunami
Hurricane
Tornado
Lightning
Thunder
Cloud
Sky
Sun
Moon
Star
Planet
Earth
Space
Universe
Alien
UFO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Physics
Chemistry
Biology
Geology
Astronomy
Medicine
Health
Disease
Virus
Bacteria
Cancer
Heart
Brain
Lung
Liver
Kidney
Stomach
Intestine
Bone
Muscle
Skin
Hair
Eye
Ear
Nose
Mouth
Tooth
Tongue
Hand
Foot
Leg
Arm
Head
Body
Face
Smile
Laugh
Cry
Tear
Sad
Happy
Angry
Fear
Surprise
Disgust
Love
Hate
Like
Dislike
Good
Bad
Right
Wrong
True
False
Yes
No
Maybe
Question
Answer
Ask
Tell
Say
Speak
Listen
Hear
See
Look
Watch
Read
Write
Draw
Paint
Color
Black
White
Red
Blue
Green
Yellow
Orange
Purple
Pink
Brown
Gray
Silver
Gold
Metal
Wood
Stone
Glass
Plastic
Paper
Cloth
Leather
Fur
Feather
Bone
Shell
Rock
Sand
Dirt
Mud
Grass
Tree
Flower
Plant
Forest
Jungle
Desert
Mountain
Hill
Valley
Cave
Island
Continent
Country
City
Town
Village
Street
Road
Highway
Bridge
Tunnel
Building
House
Home
Apartment
Room
Door
Window
Wall
Floor
Ceiling
Roof
Stairs
Elevator
Escalator
Garage
Basement
Attic
Kitchen
Bathroom
Bedroom
Living Room
Dining Room
Office
School
University
Library
Museum
Gallery
Theater
Cinema
Restaurant
Cafe
Hotel
Airport
Train
Station
Bus
Car
Bicycle
Motorcycle
Boat
Ship
Plane
Helicopter
Rocket
Satellite
Robot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Data Science
Big Data
Cloud Computing
Internet of Things
Blockchain
Cryptocurrency
Bitcoin
Ethereum
Wallet
Exchange
Trading
Stock
Market
Economy
Recession
Depression
Inflation
Deflation
Interest
Mortgage
Insurance
Pension
Retirement
Investment
Portfolio
Risk
Reward
Profit
Loss
Budget
Expense
Income
Revenue
Asset
Liability
Equity
Dividend
Share
Bond
Fund
Hedge Fund
Private Equity
Venture Capital
Startup
Entrepreneur
Innovation
Disruption
Digital
Analog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Mixed Reality
Metaverse
Avatar
Game
Gaming
Esports
Player
Team
Coach
Sport
Football
Basketball
Baseball
Soccer
Tennis
Golf
Swimming
Running
Cycling
Boxing
Wrestling
Martial Arts
Karate
Judo
Taekwondo
Kung Fu
Tai Chi
Yoga
Pilates
Fitness
Gym
Weight
Muscle
Cardio
Endurance
Strength
Flexibility
Balance
Coordination
Speed
Agility
Power
Stamina
Recovery
Injury
Rehabilitation
Physiotherapy
Chiropractic
Acupuncture
Massage
Alternative Medicine
Traditional Medicine
Herbal Medicine
Homeopathy
Naturopathy
Holistic
Wellness
Prevention
Vaccine
Immunity
Allergy
Asthma
Diabetes
Hypertension
Stroke
Heart Attack
Cancer
Tumor
Chemotherapy
Radiation
Surgery
Transplant
Donor
Organ
Tissue
Cell
DNA
Gene
Genetics
Evolution
Species
Animal
Mammal
Bird
Fish
Reptile
Amphibian
Insect
Spider
Worm
Bacteria
Virus
Fungus
Plant
Tree
Flower
Fruit
Vegetable
Grain
Meat
Dairy
Egg
Milk
Cheese
Butter
Bread
Rice
Noodle
Pasta
Soup
Salad
Sandwich
Pizza
Burger
Fries
Chicken
Beef
Pork
Fish
Seafood
Shrimp
Crab
Lobster
Oyster
Sushi
Sashimi
Ramen
Dim Sum
Curry
Spice
Salt
Sugar
Pepper
Sauce
Soy Sauce
Vinegar
Oil
Olive Oil
Butter
Margarine
Cooking
Baking
Frying
Boiling
Steaming
Grilling
Roasting
Microwave
Oven
Stove
Pot
Pan
Knife
Fork
Spoon
Chopsticks
Plate
Bowl
Cup
Glass
Mug
Table
Chair
Sofa
Bed
Pillow
Blanket
Curtain
Carpet
Lamp
Light
Switch
Socket
Plug
Wire
Battery
Charger
Phone
Computer
Laptop
Tablet
Screen
Keyboard
Mouse
Printer
Scanner
Camera
Microphone
Speaker
Headphone
Earphone
Bluetooth
Wifi
Internet
Website
Email
Message
Chat
Call
Video Call
Conference Call
Meeting
Schedule
Calendar
Reminder
Alarm
Clock
Watch
Time
Date
Year
Month
Week
Day
Hour
Minute
Second
Morning
Afternoon
Evening
Night
Midnight
Noon
Today
Tomorrow
Yesterday
Past
Present
Future
History
Memory
Remember
Forget
Learn
Study
School
University
Library
Book
Textbook
Notebook
Pen
Pencil
Eraser
Ruler
Paper
Homework
Exam
Test
Grade
Teacher
Student
Class
Lesson
Lecture
Tutorial
Seminar
Workshop
Conference
Research
Thesis
Dissertation
Degree
Diploma
Certificate
Graduation
Ceremony
Cap
Gown
Scholarship
Tuition
Fee
Loan
Debt

7.

2016년 무척이나 많이 듣게 된 단어는 민주주의였다. 대한민국에서 보편적 교육을 받게 된다면 다양한 민주에 대해 배우게는 되지만, 화려한 휴가나 택시운전사와 같은 영화들이 흥행하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가진 상징성을 더욱 부각시키게 되었다.

나의 경우 80년대 중반 서울 출신이며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친인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모님 또한 성장 환경이나 학력 등이 그다지 윤택하지 못해 일찍부터 가난과 투쟁하신 분들이라, 민주화에 대한 인연은커녕 오히려 그런 사건들을 피하고 안전하게 내 가족들 지키는 것이 최고로 생각하던 분들이었다. 그래서 시위나 투쟁에 나가는 이들을 안타깝게, 혹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다. 그 밖에 자라온 동네나 교우를 맺은 이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아무튼 나에게 민주라는 것은 다소 멀리의 이야기였다.

계기점은 역시 촛불 집회일 것이다. 나는 용산 참사부터 하여 세월호, 그리고 탄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관심을 갖고 보니 그 역사가 생각보다 길어서 깜짝 놀랐었다. 내 스무살 즈음에는 정치 이야기라는 것은 다소 매니악한 지점이 없지 않았고 나도 이에 마찬가지라서 관심끄고 사는게 최고라는 인식이 없지 않았다. 내가 그랬던 것에 반해 다른 누군가들은 더 치열하게 목소리를 냈구나 싶더라. 아무튼 탄핵 관련 촛불 집회가 젊은이들에게, 일종의 각성하는 유행이 되면서 나 역시도 이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렇게 2017년 여름, 광주에 도착하게 되었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한국 민주주의의 한 상징성이라는 생각에 언젠가 한번 방문은 해야겠다 싶었는데, 때마침 광주 지구발전오라의 단기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도착한 첫날 나는 광주와 민주화 운동에 대해 알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그리고 굳이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이들에게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심이 있다고 할 때마다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하였다. 뒤에서 또 후술하겠지만, 광주 밖에서 뜬금없이 나타난 이가 민주화 운동을 거론하는 모습은 이곳에서 매우 익숙한 풍경 같았다. 그리고 대체로 이렇게 등장한 사람들은 그 거대하고 복합적인 사건을 일차원적으로, 또 그러한 시선으로만 광주를 보려고 했던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다. 내 앞으로도 수없이 줄을 섰을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내가 해당되지 않을 것이란 법은 없었다.

물론 경험적으로 거대한 이야기일수록 알고 싶다고 해서 순탄히 알게 된다는 보장은 없었고, 또 무엇인가를 알아간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나 진정성과 비례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기에, 당황은 하되 이해 못할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사건과 그 후의 진행되는 이야기들에 경외심을 갖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생각했다.

그러던 와중 박찬경 작가의 안녕 전시가 국제 갤러리에서 열렸다. 본래 전시를 자주 보는 편이긴 하였지만 그 전시는 정말 몇 번을 본지 모른다. 그리고 볼 때마다 묘한 고민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그의 과거작 신도안을 흥미롭게 본 기억이 있었다. 호기심이 생기는 신비한 이야기들이 근현대의 역사와 조합


HONG KONG TOGETHER
撤回修例
獨立調查
平反暴動
控
撤一貼十
元朗人加油
香港加油
黑社會
遭射橡膠子彈
專射向頭
元朗警黑 一家親
Wanted

되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관심과 흥미도를 느끼게 만들었다. 자꾸 뒤가 궁금해지는 이야기였다. 다만 그 외 작품들은 전반적으로는 호불호가 없지 않았는데 역사와 재현이라는 과정에서, 해석이라는 글자 이외에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관객의 관점으로는 다소 아쉽거나 막막함 같은 것이 있었다.
안녕 전의 대부분을 차지한 흑백의 대형 비디오 또한 언급한 관람평이 연계되었다. 비디오는 광주에 대한 직접적인 거론이기 보다 오윤 작가의 작품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근대사를 하나로 묶은 여과 과정을 거친 작업이라 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충분히 광주 이야기였다. 메인 영상 작품 내내 보여주는 어둡고 무거운 숲에서 배우들, 일부는 익숙한 작가들이 무엇인가 추상적 연기를 선보일 때 나는 무엇인가 비유적 익숙함을 느끼면서 군악대와 제사, 할머니 신앙을 모티브로 한 삶과 죽음의 구조를 떠올릴 수는 있었다. 그것은 사실 바로 앞에서 정직하게 읽혀지는 것이었다. 다만 읽음은 어디까지나 읽음이지 그 이상의 어떤 방향의 제시나 혹은 감각적 성찰1)을 찾기는 어려웠다. 그의 작업의 또다른 주제답게 무속과 같은 한참의 행렬과 행동들은 일종의 재현극으로 막을 내렸다고 본다. 그리고 나는 반복되는 영상의 사이에서 모호한 부재를 느끼게 되었다. 영상 내내 위로와 행진은 존재하였지만 그 단어, 그 이상에 무엇이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이다.

1) 모든 예술 작품이 꼭 방향성의 제시나 관련된 교훈 등을 줘야 하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역사적 서사, 특히 근현대사를 다루는 것은 자연스럽게 해당 사건이 지금까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그 안에서 작가의 객관적인 위치 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표현하자면 의도적 여운인지 혹은 무의식적 공백인지 모르겠으나, 위로와 애도같은 보편적인 윤리적 감성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 것인지 나는 느끼기 어려웠다. 묘한 공허감과도 같은 것이, 이미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한 상식적인 감각 그 아상의 것을 어떻게 느끼거나 받아들여야 할까.
그것은 나에게는 큰 고민거리였는데, 창작물을 통해 보여지는 보편적 윤리의 견해가 너무나 익숙한 방향으로 일조하는 것일 때 그 창작물의 존재 이유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태연하지만 재현 및 창작의 과정을 관람하며 모종의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무엇보다 진정성이라는 표현을 어떤 기준으로 상정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이다. 단순히 특정한 사건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고 호소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고 한다면 수없이 탄생되어지는 관련된 모든 창작물과 미디어들에 동일한 진정성이 부여되는 것일까. 무엇보다 그 창작물과 미디어들을 통해 해당 사건은 지속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표현 그대로 이야기에 깃든 역사적 이데올로기와 수많은 감각들을 작가와 관객이 각각 나름의 관점으로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부정적인 표현이 아닌 것이 쏟아져 나오는 미디어들을 통해 해당 이야기는 계속 개조되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마치 재단하듯 분리하여 박제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에, 안녕 전의 영상물에게 어떤 독자적인 가치가 부여되기 위해선 그 창작자의 위치와 목적, 그 시도에 타당성에 더욱 관심을 갖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과거 임민욱 작가의 2014년 퍼포먼스도 떠올려 보는 것이다. 당시 직접 관람하지 못하여 이것에 대해 생각을 나누기는 조심스럽지만, 코발트 광산 사건의 유해와 광주 유가족의 만남이라는 방식은 일차원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상당히 직접적이고 또 강렬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 공포


世界真公義
由香港開始
7.21 的元朗
7.28 中上環
光復元朗
7.21 黑警濫暴升級
向地面指示者開槍
香港人加油!!
死仲啲
Don't kill Us
堅持就是勝利!!
六四紀念館
TIANANMEN MUSEUM

감을 주기도 하였다. 분명 의의는 있으나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의 직렬이었다. 공통적으로 이 두 작가의 작품을 생각해보면 역사를 재단하고 이어 붙이며, 그러한 방식으로 서사에 기대어 관객에게 호소하는 지점이 있다고 본다. 자신들이 속한 구조의 지금과,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근간에 대한 언급일 것이다. 또 지금의 세대에 속하는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문제이기에 어떤 성역화 된 지점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서두에 밝힌 영화들의 사례처럼, 그것을 통해 대중이 다시 각성하고 관련된 진실이 해결되며, 희생당한 이들의 넋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긍정적 기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공통적인 문제를 언급하자면 해당 사건들이 먼 옛날의 역사같은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관련인들이 살아있고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황이란 것이다.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근대의 역사를 하나로 묶고 그것을 박제화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상당히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지점도 없지 않았다. 물론 과감한 시도 같은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 문제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해당 사건이, 그것과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수많은 감정과 이야기들이 하나로 뭉뚱그려지기에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개체의 소멸이다. 예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누군가 했던 말이, 해당 사건은 수백 명이 사망한 하나의 사건이 아닌 한 명이 사망한 수백 개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었다. 대중이 해당 사건을 커다란 하나의 비극으로만 인지하며 동시에 한 명 한 명에 따른 고유한 이야기와 감정들이 무뎌질 수 있음에 대한 경계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하나로 보려고 할 수록 거리는 멀어지고, 그 거리감으로 인해 현실성이 희미해지고 화자는 부재하는 것 아닐까.

더욱이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었던 수많은 시간들, 광주하면 떠올리는 이야기와 또 광주비엔날레 하면 떠올리는 창작물을 생각해보면 꽤나 많은 피로감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특히나 비엔날레 관련해서는, 그 이야기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재현되고 또 재현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보편적 윤리의식의 언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해당 관련인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더 큰 딜레마이며 망자들은 그러한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위의 두 작가가 한국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음은 사실이고 그들의 작품들은 분명 충분하고 타당하며 의미있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가 과거에 제시하는 위로이자 한풀이이며, 불특정 미래를 향한 재현의 시도들임에는 분명하다. 내가 느꼈던 어떤 불편함이나 공허함은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역사적, 그리고 창작의 책무감 사이에서 하나의 견해라고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런 사건들을 통해, 어떤 역사를 언급한다는 것은 분명 해당 역사에 너머서의 세계 또한 인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그리고 화자의 목적과 위치에 대해 계속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음을 다시 느껴보는 것이다.


721 Timeline of Yuen Long Incidents
721 元朗白衣人恐襲事件
2019.7.21 香港發生了什麼?
口罩
眼罩
頭盔
HONG KONG NEEDS YOU
香港需要你
自由のために
如果你既下一代活係
VPN
你對得住佢?
五十年不變?
多謝前線
五大訴求
LIKING!
撤回惡法
香港加油
向前看，一齊嚟，一齊走
是湯家驊向
林鄭提出：
修訂逃犯條例
元朗人加油!
Wanted


727星期六
元朗
Yuen Long
反黑大遊行
光復元朗！
SOS
中上環
平反暴動
撤銷檢控
Condemn police for firing on protesters!
光復香港
時代革命
黑官 × 鄉黑 × 黑警
727 反對黑社會勢力

8.

광주에서 작업 구상을 막 시작하였을 때 들었던 얘기는 꼭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아니어도 된다고, 아니 아니길 권고한다는 말이었다. 그런 얘기는 내가 머물렀던 지구발전오라 뿐만은 아니었다. 사실 처음에는 다소 당황스럽긴 하였으나 한편으론 충분히 이해되는 이야기였다. 무엇보다 나 역시 매 비엔날레마다 입구에 하나씩 있는 518을 바탕으로 한 작업들을 보며, 그 의미의 중요도를 떠나 어느 지점에선 뻔한 클리세처럼 느껴지는 느낌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창작을 하는 입장에서 무의식적으로 논하게 되는 진정성의 여부 부터가 어느 순간 피로감을 안겨준다.

그러나 문제는 이곳이 가진 역사와 특수성은 분명 외부인 입장으로서는 무척이나 다루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이다. 나는 앞서 이야기 한데로 탄핵 촛불 운동과 대중이 모인 광장, 그의 기원인 518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두며 광주에 방문한 것이었다. 그것이 무지나 전문 지식의 덜함 정도로 보여도 할 말은 없지만 그것이 거의 전부였고. 그래서 난처함과 괴리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거대한 역사적 사건, 특히나 비극적이고 숭고한 서사시일수록 그것이 가지는 성역 또한 거대하게 존재한다. 그 거대한 서사시가 지금의 세상을 만들어낸 한 축이며 그것의 거론 없이는 지금을 이야기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불가침 지역이다. 그 영역에 대한 접근은 필연적으로 윤리적이고 절대평가적인 심판대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술한 데로 지금을 이야기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것에 대해 편집하고 가공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바로 그런 지점에서 예술가라는 정체성은 딜레마를 겪게 된다. 만들고 보여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심판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체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간에 역사의 결정에 편승하고는 한다.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며, 돌이켜보면 과거 대통령들이었던 이들의 후대 평가나 위안부에 대한 논의 등에서 살벌한 사례들이 꽤 있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서사시가 후대에 다뤄짐에 있어 오로지 도구화 된다는 것이다. 물론 거시적 관점으로 모든 인간은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 도구화 혹은 소재화 한다는 것은 당연한 행위이다. 그러나 정치인, 예술가, 엔터테이너 등 전통적으로 대중 앞에 아바타를 선보이고 그것을 통해 보상을 받아오던 이들에게 있어 이런 역사적 서사의 도구화는 결코 단순하게 생각해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미디어의 발달로 아바타 이미지 메이킹은 더욱 빠르게 만들어지고 전파 된다. 새로운 창작물이 쏟아지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인물이 뜨거나 지고 많은 것이 빠르게 탄생하고 소비되는 가운데에 창작이라는 산업활동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사는 결국 활용되고 소비되는 과정을 거치며, 이번에는 관객의 평가대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앞선 성역이 등장하는 것이다. 서사에 의하여 창작자가, 또 창작자에 의해 서사가 평가를 받게 되는 지점에서 성역이 발동한다. 그것은 평가의 최종 지표이자 소비의 주체인 관객은 가장 안전하고 보편적인 선택을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창작물이 못 볼 수준만 넘긴다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지만 않다면 대체로 그것이 도구로 삼은 역사적 서사의 윤리적이고 보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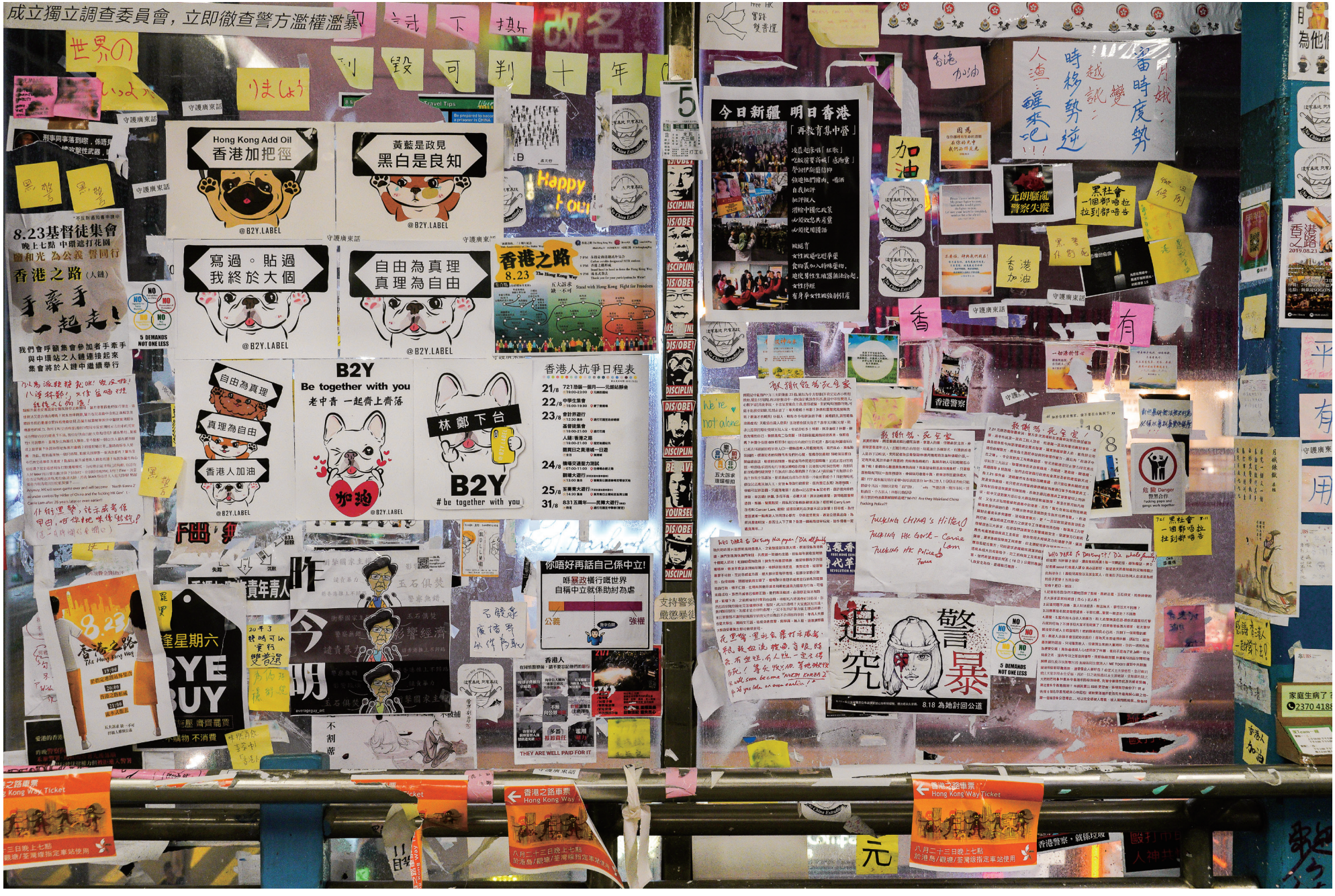

多謝每位有良知的香港人
我们不是搞乱香港
我们是在捍卫人权
官逼民反
撤
追究有理
香港警黑警滥用暴力
林鄭黑警
LORD
7.21 上環｜警察濫暴
警方在沒警示下開 36 槍，
有示威者沒有作出任何攻擊下突然被警察拉走
7.14
沙田區大遊行
7.28
中上環
WANTED
DEAD OR ALIVE
危險 Danger
警黑合作
Popo and gangs
work with each other
撤一貼萬
沒有暴政
只有暴政
HONG KONG
CHINA
I HK
WE ARE
SING HALLELUJAH TO THE LORD
FREE HK

인 인식과 동등하게 봐주는 것이다. 몇 번 언급해 조금 미안하지만 영화 〈귀향〉의 사례만 하여도 영화 자체의 수준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영화에 대한 평가는 곧 위안부 역사의 평가처럼 인지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결국 도구로서 활용되는 역사적 서사에 대해 창작자를 제외하면 모든 관객은 다소 모호하고 곤란한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수준과는 별도로 진성성이나 양심 같은 것들은 사실 창작자 개인도 그 정도와 깊이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진정성, 가령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객관적으로 지표화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만큼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있다 하면 있는 것이라고, 즉 존재의 유무 정도로만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사적 서사가 엔터테이먼트로 활용되는 것에는 성역이라는 유능한 변호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야기를 양산하는 상황을 불러오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인지하는 518을 비롯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행사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아트워크들이 탄생하게 되는 현상의 견해이다. 특히 518 관련 행사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글에서 밝히지 못하는 다양한 기회(때로는 현실적인)들을 내포하는 만큼, 앞서 표현한 이야기의 양산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의미로 다시 나와 같은 이방인을 불러온다.


徹查黑警濫權
香港警察是走狗
Change does not roll in on the wheels of inevitability
but comes through continuous Struggle
反共絕無妥協
奮鬥才能自由
True Peace is not merely the absence of tension
It is the presence of justice
Martin Luther King
I Stand with
加油
唔好放棄
香港人加油！
民主中国由香港开始
香港是我家
抗爭奮勇參加
守護香港
香港人加油
堅持
我地仲未
光時
一黑鐘
Let Hong Kong Be Water
Be Water
Hong Kong
721 三點鐘相見


成立獨立調查委員會，立即徹查警方濫權濫暴
改名
Hong Kong Add Oil
香港加把勁
黃藍是政見
黑白是良知
@B2Y.LABEL
寫過。貼過
我終於大個
自由為真理
真理為自由
香港人加油
8.23基督徒集會
晚上七點 中環遮打花園
點和光 為公義 齊同行
香港之路（人鏈）
手牽手 一起走！
我們會呼籲集會參加者手牽手
與中環站之人鏈連接起來
集會將於人鏈中繼續舉行
5 DEMANDS NOT ONE LESS
B2Y
Be together with you
老中青 一起齊上齊落
林鄭下台
B2Y
be together with you
香港人抗爭日程表
21/8 721加強一國兩制——元朗白襪使
22/8 中學生集會
23/8 會計界遊行
基督徒集會
人鏈：連接之路
24/8 機場交通阻力測試
25/8 荃灣大遊行
31/8 831五周年——民陣大遊行
你唔好再話自己係中立!
喺暴政橫行嘅世界
自稱中立就係助紂為虐
公義
強權
香港人
THEY ARE WELL PAID FOR IT
今日新疆 明日香港
「再教育集中營」
追究
警暴
8.18 為她討回公道
香港警察
危險 Danger
香港之路
Hong Kong Way
八月二十三日晚上七點
於港島/觀塘/荃灣線指定車站使用
香港警察，就係垃圾

9.

광주에서 가진 단기 레지던시가 끝날 때쯤 나는 무척 아쉬워 했는데, 광주는 예술가를 포함한 문화활동가의 입장에서 많은, 다양하고 실리적인 의미로 기회들을 가지고 있었다. 또 내가 경험한 작가들과 문화공간들이 맺은 커뮤니티는 당시 기준으로 서울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많은 관계를 맺고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름의 장단점들은 있겠지만 여러가지 의미로 좋은 파이와 좋은 이들, 좋은 공간들이 모여 있었다

바림 역시 광주에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네트워크와 흥미로운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다. 언젠가 관계를 맺었으면 했으나 2015년 게스트하우스로 방문한 것 외에는 마땅히 어떤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바림의 기획자인 강민형씨에게 처음 말을 걸어본 것은 광주에서 있었던 한 두차례의 술자리들이었다. 그리고 그가 외부인으로 광주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 만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본 자료집을 제작하며 제일 먼저 떠올린 사람인데, 최대한 다양한 시선으로 광주에 대한 행사와 아트웍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갑작스러운 인터뷰 요청에 감사하게도 곧바로 자리를 가질 수 있었고 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 거리를 꺼냈다. 첫째는 광주의 518 행사에 대한 생각들, 특히 역사적인 사건들이 계속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그것을 일종의 퍼포먼스로서 형상화 되는 것에 대한 감상들과 둘째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루는 창작품, 특히 광주의 경우 518을 다루는 창작물들이 다소 반복적으로 생산된다고 보며 느끼는 개인적인 불편함 이었다. 이 외에도 짧은 시간이 아쉬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지만 일단 앞선 두개의 이야기 거리를 발췌 및 편집하여 정리해본다. 작성 과정에서 나의 주관적 편집점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히며 특히 개인적인 해석은 별도로 구분하였다.

오 : 저는 개인적으로 518 전야제들이 항상 인상 깊었습니다. 모든 곳의 기념 • 추모제를 본 것은 아니지만 518 전야제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게, 몇 년간 행사를 지켜보며 해당 사건이 아직 진행중이며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야제는 그것을 상당히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강 :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는 518전야제의 경우 재현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작품,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기 보다, 뭔가 나만의(예술가의) 시선이 있으면서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타자화 하지 않으면서, 해당 역사에 대해 보편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을 재조명 하는 경우들을 중요하게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518 전야제의 경우에는 재현의 목적이 있다고 봐요. 현대 예술은 재현에 큰 가치를 두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페미니즘 예술을 봐도 과거에는 여성들이 당해왔던 고통 같은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등의 방식들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소위 말해 촌


是湯家驊向
林鄭提出：
修逃犯條例
Every Word removed From the language is another brick removed of democracy
Are Not Alone Hk !!!
DO NOT
HIJACKING HONG KONG
represent the other million in HONG KONG
Hong Kong is NOT CHINA
7.28 中上環
7.21 HOPE TO SEE You!
Be Water
FREE HONG KONG
Support Hong Kong
HK BUT HK GOVT
他們跟你一樣，
各有家室，有大好前途，
為了守護香港，
他們願意站出來，
你呢？
721 三點開鐵見

스럽다고 하는 시대이거든요. 왜냐하면 여성들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한 명 한 명의 경우가 너무 다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이죠. 518도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하나의 어떤 그림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피해자들이 가진 다양한 삼라만상의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야제의 목적은 재현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 당시를,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재현을 통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것 같고 그게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현대 예술작품과의 차이점이기도 하고.

오 : 저는 이것이 일종의 씻김굿이라는 생각도 해봐요.

강 :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것이야 말로 예술 작품이 오히려 못 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예술의 장점이자 단점이 예술가의 시선이 들어간다는 거 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술가의 시선을 통해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굳이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관련자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술가들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러한(역사적 이야기 거리를 소재로 하는) 창작활동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1) 오히려 그걸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치유가 되고, 그들이 역사를 체화해서 기억하는 방법이라면 저는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방법을)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또 그걸 비판할 수 없는? 그래서 각자 역할이 다른 것이고, 누군가는 재현을 해야 한다 생각 하기도 해요.

1) 편집을 하며, 역사적 이야기를 소재화 하는 작업들이 가지는 일종의 성역화 현상에 대한 부분이다. 특정한 비극이 예술로 다뤄지면서 그것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자칫 윤리적 의식으로 곡해되는 현상이 없지 않다.

오 : 광주에 인연을 맺으며 518에 대해 외부의 예술가가 접근하는 것에 어떤 경계 같은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사실 광주에 많은 518 관련 작업들이 있었으며, 상대적이겠지만 그것들이 단순 소모적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아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해당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강 : 아직 살아있는 518 관련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예술가로 하여금 자기 사유화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문화예술인이란 이름으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역사적 사건 등을 단순 소비, 소모하고 있다면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2)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518 이야기를 이용하기만 하려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외부에서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이 왜 접근하려고 하는지 생각해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香港人日程表
NOT YET CHINA
Wanted
黑警唔拉人
市民自發搵
TVB
沒有告訴你的事
加油!
HONG KONG
香港人
加油
永不言敗
光復香港
時代革命
Peace
Bless HK
We LOVE HK
Hong Kong Police This is NOT Riot
Hong Kong Police No Shooting
SHAME ON CARRIE LAM AND HER GOERNMENT !!!!
Carrie Lam, You ARE KILLING HONG KONG !!!
Don't Give Up
21 JULY 2019

2)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518을 포함하여 많은 비극적 사건들에는 후속적으로 관련된 창작들이 진행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사건을 자신의 창작을 위한 단순 소재로만 접근하는 경우도 없을 수 없다. 다만 그것의 진정성을 직접적으로 논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당연히 아직 피해자와 배제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외부인이 역사적 사건을 단순 소재화 시키는 것)을 전부 반기지마는 않겠죠. 그런 면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타자나 이방인의 시선에서 만든 작품 중에 좋은 작품, 좋은 연구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는 예술가가 자기 사유화로만 다루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큰 그림을 보려고 한 거겠죠. 다른 시선을 제공 한다든지, 한번도 못 봤던 걸 발굴 한다든지. 오히려 타자들,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강 : 그런데 사람들이 작품을 만든다는 것 자체를 우위로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요. 마치 스스로가 이 사건과 관련된 창작을 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들도 중요한 사회 운동처럼 여겨야 하는 양, 그런 경우들 때문에 이러한 갈등들이 생긴다고 봐요. 저는 그게 가끔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가 있는데, 그것을 작품으로 만든다고 하는 예술가의 에고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작품을 만들 필요는 있는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아직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해결이 안된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작품을 만드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그 우위를 따져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작품 만들지 마, 다 같이 가서 기부하고 엉엉 울자 이렇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선 경우처럼 예술가만이 가능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다만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의 에고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림을 포기 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재능기부나 사회봉사처럼 가서 또 같이 씻김굿 하고 이러라는 건 아니지만… 그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가로서 자기 에고도 중요하지만 사유화 하지 않고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518 관련자 등)에게 다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것을 이끌어 내려 고민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작품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건 작품에서 표가 나는 거죠. 아 이것을 소재로만 썼구나. 관객의 시선에서도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518을 주제로 했다, 홍콩 민주화를 주제로 했다 이런 걸 보러 갔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리서치를 했고 어떤 시선으로 이것을 보려고 했는지는, 그냥 되게 보이거든요.

오 : 그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의 딜레마긴 하죠.

강 : 그래서 좋은 작업들이 많이 없는 거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외부인이 역사적인 사건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물보라를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존재감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잘 맞추려면 정말 많은


香港
加油
你唔好再話自己係中立!
喺暴政橫行嘅世界
自稱中立就係助紂為虐
公義
強權
STOP SHOOTING CITIZENS
RESIST STATE TERRORISM
警察陷害港人!
我是老師・我與年青人同行
遍地開花
還我公義
香港人加油!
天大笑話
元朗恐襲
西環衝突
Always on your side
HK Peoples
香港加油
抗爭到底!
香港人加油
Be water!
Be Coke!
We Love HK
Fighting Support!
請你講人話
失控警舉可發射實彈之
雷明登870散彈槍
手指已扣上扳機
POLICE
唔當產!
張

리서치와 공부가 필요한 거죠.

오 : 앞선 질문에 이어 저는 그동안 봐왔던 특정 작업과 전시들을 보며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작업들, 지난 비엔날레들에서도 거의 매번 있는 작품들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이미 나와있는 결론, 그 이야기가 귀결이 되어 일종의 성역화 된 것에 대해 편승하려는 느낌 등을 받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것 만이 전부는 아닌 복합적인 불편한 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강 :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오작가님이 아니니 모르지만. 쉽게 말해서 다 되어 있는 밥상에 숟가락 얹는 작품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큰 역사적이거나 문학적 서사, 철학 사유 등 이미 나와 있는 소재들을 차용하고 자신의 이야기 안에 넣는 방식, 전유와 차용, 사유를 한다라는 것을 현대 예술이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현대 예술 전시에 가면 철학자들이 쫙 서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18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완성 되어있는 서사에 편승하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납작하게 이야기하자면 숟가락만 얹는 방식 자체는 굉장히 오래 현대 예술이 해왔던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딱히 518이 대상이 되어도 놀랄 일은 아닌 거에요. 근데 저는 그게꼭 518이라서 불편한 게 아니라 현대 예술가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소비해 오는 게 불편해요. 그게 꼭 518을 해서 불편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518 자체도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재현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이 예술계에서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태도가 있는 거 같아요. 재현을 하는 것, 남의 것을 갖다 쓰는 것, 이미 있는 것을 갖다 쓰는 것이 불편하다 라고 하는 태도가 예술계에 있다고 보거든요.3)

> 3) 반복해서 등장하는 재현은 단순한 표현의 시도로서 재현 뿐만이 아니라 예술이 창작되어지는 과정과 개념 그 자체로서 재현이라 볼 수 있으며, 레디메이드 이후 차용과 전유가 등장하며 근대와 현대가 구분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근대적 재현을 일종의 전통적 답습이라 본다면 전유 이후부터는 전복과 도구화라고 생각해 본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518 전야제 같이 어느정도 재현을 하는게 어떤 피해자들에게는 힐링이 되고 의미가 있는 거라면 재현을 안 좋게만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핏차퐁4)의 경우에도 거기(작품이 설치된 국군병원)에 들어가서, 아 여기에서 사람이 되게 많이 죽었구나, 너무 슬프다 하고 또르르 눈물을 흘리고 나온다면, 일차원 적인 감상일 수 있지만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는 거에요. 왜냐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거기서 흘린 눈물이 엄청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런 일차원 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와 감상을 촌스럽게만 생각하는, 현대 예술의 태도가 있기는 하다고 보거든요.


FREE HONG KONG
時代革命
REVOLUTION NOW
HK
加油
8.18
見啦!!
頭盔
helmet
URGENT
20140802
YOU DO. BECAUSE THE GANGSTER & POLICE ARE FRIENDS, AND THE PROTESTOR IS AN UNDERCOVER POLICE
STAND FOR HONG KONG!
PROUD OF HONG KONG!
加油
#Me too
FEMALE PROTESTOR WAS SEXUALLY HARASSED BY POLICE AFTER ARREST
SHE WAS FORCED TO TAKE OFF ALL OF HER CLOTHES INCLUDING UNDERWEAR WHEN FEMALE POLICE FRISKED HER WITHOUT GLOVES
SHE WAS THEN INSULTED VERBALLY AND PHYSICALLY WITH PEN BY TOUCHING HER LOWER PRIVATE PART
WHEN THE DOOR WAS OPENED AFTER CHECKING , A GROUP OF MALE POLICE WERE STANDING OUTSIDE THE ROOM LOOKING AT HER
STAND WITH HK
NO POLICE BRUTALITY
警黑三十日 警隊策略：不受傷，不拘捕，不檢控
721 元朗搗立圍
805 荃灣白衫人
805 北角福建幫
811 北角塞林木
820 將軍澳新人
民建聯支持警方
陳克勤
#堅定撐警
喬裝示威者生事
民建聯支持警方
蔣麗芸
#堅定撐警
掃射示威者
民建聯支持警方
李慧琼
#堅定撐警
射盲市民
URGENT
20140802
記者們加油！辛苦晒
還我家園
I ♥ Hong Kong
守護廣東話
香港
主佑香港
Thank you Hong Kong
You're Beautiful Hong Kong!
表揚 愛国
香港加油
請表揚愛國商店

4) 2018년 광주 비엔날레에서 아핏차퐁 위라세타쿤은 옛 국군병원에서, 오래되고 어두운 건물을 바탕으로 별자리라는 정적인 설치 작업을 선보였다. 매우 반응이 좋았으며 그해 비엔날레의 대표 작가처럼 소개되기도 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왜 그렇게 촌스러워 하지? 그냥 정말 피해자들이 그걸 보고 정말 한 명이라도 힐링을 한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걸까? 아핏찻퐁의 작품이 좋고 안좋고를 떠나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던 것은 그것이 일차원 적인 감상이 되기도 하면서도 다층적인 감상 또한 가능했고, 한 개의 작품이었지만 복합적으로 보는 것도 가능했다 보거든요. 물론 그것을 다 아우르는 게 좋은 작품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작품이 또 다 아울러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불편하게 여겨질 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다음 작업이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재현 중심의 예술, (예술계에서 촌스럽다고 여겨지는 일차원적인) 518관련 예술 작품을 보며 내가 기분이 별로였다면, 그것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WECONNECT
八月五號見
自己加油!
林鄭下台
合作無間
守護廣東話
一個都不少
不流血不被捕
租金貴你接受到 物價貴你接受到
沒有暴動只有暴政 沒有暴政只有暴警
我♡大家!
一齊堅持!
香港人加油!
香港加油 支持民主 返送中
7.7 警察濫權
七宗罪
FOR THE PEOPLE
撕一貼百
八月五號見
Free
用和平方式
解決政治問題
RESOLVE POLITICAL PROBLEMS WITH PEACE
Since June 9, more than 2,100 injuries, what
沒有暴動只有暴政
追究7.21官警黑社會
機場見
守護廣東話
BE
香港之路
2019.08.23
五大訴求缺一不可


Lennon Wall
請不要撕掉
撕紙王
THE RA KING
Full Gear Shopping Day
招聘
7.21
7.14 沙田新城市廣場真相
請廣傳!!
7.21 的元朗
7.28 中上環
7.27 光復元朗
元朗
Yuen Long
市民自救指
HK keep on free
Don't Give up!!
Stand with Hong Kong
Fuck
Water

10.

강민형 기획자와의 인터뷰를 편집하며, 그가 내게 한 답문인 “당신은 어떤 작업들에 대해 왜 불편을 느끼는가”가 꽤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다. 이 질문을 받는 것은 처음도 끝도 아니었음에도 나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본 자료집을 엮게 된 계기이자 내 근 몇 년 간의 풀리지 않는 고민인 그 불편함의 이유에 대해서, 나름은 오랜 기간 꽤나 많은 글로 작성을 하면서도 여전히 뾰족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 어떤 규범과 잣대를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란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 답답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다.

견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동안 이 나라에 무척 많은 일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로 남은 세월호 사건이나,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촛불집회, 그리고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야기로 제작되고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간 근현대사에 대한 애도, 그리고 창작에 의한 소재라는 두가지의 다른 지점에서 나는 많은 경우들을 보며 이것이 무척이나 얇은 차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하여 내겐 짧지 않은 시간동안 수많은 이슈와 인파를 쫓아보며 사건들을 보고 기록을 할 때마다 이것을 얼마만큼의 거리를 둬야 하는지 스스로 묻고는 하였다. 촛불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누군가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역사적인 기념비를 기록할 때마다 그 모호한 경계선에서 갈등하였다. 그것은 진정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스스로의 두려움일 것이고, 먼저 그 경계 근처에 자리를 잡은 다른 이들에 대한 불편이 되기도 하였다.

모든 이가 가진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존재 자체가 잘못될 것은 없다. 그리고 역사적인 흐름 또한 그것이 세상에 남긴 커다란 흔적만큼 당연히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야기 될 수 있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내가 창작을 시작하며 보고 배우며 영향을 받은 이들 중에는 대체로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를 당하거나 블랙리스트 라는 것에 올라가기도 하면서까지 어떤 일들을 행하는 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분들께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누군가는 해야하는 것인데 내가 하는 것 뿐이지 정도의 공통적인 답변을 듣는 것이다.

그것이 제일 어렵다. 경계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 밖에서 지켜봐야 하나. 각자의 장단점이 있고 그날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인지, 내 역할은 무엇인지는 직전까지 모른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위치해야 할 그 자리, 경계의 안과 밖 어딘가에 자리를 잡는 것에 많은 두려움이 누적되었다. 좋은 장면을 놓칠까봐, 혹은 나는 여기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을까봐. 무엇을 위한 진정성이며 그것의 행방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앞서 표현한 분들의 말씀처럼 그저 해야하는 일을 하려는 것인지 혹은 다른 목적으로 이것을 보고있는 것인지, 그것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아직 많이 어렵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사건을 보려는 것은 그것에 대해 영원히 이방인이고 외부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기록과 경험 그 자체로 숭고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 아니 그래야 할 것 같은 모종의 의무감과 숭고함에 나는 앞서 찾고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계속 멀리서 관찰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두려움이나 용기가 없음, 혹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두려움이라 누가 지적한다면, 나는 앞선 욕망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이 거대한 서사들을 어떤 자세로 봐야 하는지 묻고 싶다.
아마 그렇다 보니 나는 계속 불편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일지 모른다.


金鐘街坊支持你
香港人加油
保衛連儂牆
林鄭不落地獄誰落????
撤回暴動
50年不變
一國兩制
警民證收埋隊
當差無分休唔休
知法犯法
不是暴徒
我希望和你一起
見證香港民主的實現
林鄭，請問你可聽聽毛主席怎麼說嗎？
屬於人民內部的爭論問只可以用人民的方法去解決
警察新制服
守護孩子 齊來抗爭
撐警起義站
52
還記得第一次穿上警察制服的初心嗎？
999救援熱線
被CUT線


尖東 EAST TSIM SHA TSUI
香港基督教青年會 YMCA Building
中間道 Middle Road
亞士厘道 Ashley Road
北京道 Peking Road
半島酒店 The Peninsula
彌敦道 Nathan Road
Star Ferry Pier 天星碼頭
1881 Heritage
Canton Road
Harbour City
NO SMOKING
支持雙方
停止暴力
用和平方式
解決政治問題
Hong Kong fair
FREE HONG KONG
DEMOCRACY
CLEVELAND

시위, 시민의 당연한 권리 그 본질에 대하여_ 박원식

4.19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독재정권에 맞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벌인 시민운동, 교과서에서 처음 보고 배운 시위의 모습이었다. 우리 역사상의 큰 획을 그은 시위였고 그 분들의 노고와 희생 덕분에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나에게 크게 와 닫지는 않았다.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전 국민이 열광하고 있었던 6월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신효순, 심미선 두 중학생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났다. 명백한 과실치사! 그런데 이 사고의 가해자들은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에 의해 미국의 조사를 받았고 사건의 은폐 조작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상황에서 같은 학교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촛불 하나 들고 거리로 나오는 것이 전부였다. 학생들이 요구했던 건 제대로 된 조사와 사과일 뿐 미군 철수 같은 정치적 요구가 아니었다. 같은 나이었던 나와 친구들도 함께 촛불을 들고 시위에 참가했다. 그리고 이 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안타깝게도 사고의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데에 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내고 조지 부시 대통령의 유감표현을 이끌어 냈다. 약육강식의 국제정치 속에서 미미한 성과였지만 나와 같은 학생들이 낸 작은 목소리가 작은 변화를 이끌어 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 있다'는 헌법의 이념이 글로만 존재 하지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처음 느낀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도 부당한 것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동북공정 규탄대회' 등 크고 작은 시위에 자발적으로 참가 하였다.

그런데, 2008년 "각 과당 30명씩 의무적으로 참여해주세요~!!"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 참석의 통보가 있었다. 물론 당시 시위는 한미 FTA에 따른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 즉 먹거리에 대한 문제로 대두되었기에 종종 시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지만 통보가 오자 반발심이 들었고 내 생각 의견과는 다른 구호들이 연설자를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내가 생각한 것은 이게 아닌데....' 그리고 다시 시위와 멀어져 갔다.

2014년 4월 16일 나름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던 대한민국에서 수학여행을 가던 304명의 학생들이 진도 앞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기다리라'는 말만 믿고 기다린 학생들은 차가운 바다 속에 수장되었고 선장은 가장 먼저 탈출 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 같아 많은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물론 그 현장에는 나도 있었다. 학생들의 추모와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진장조사를 원하는 목소리였다. 그러나 의혹이 커져갈수록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유족들이 돈을 더 받으려고 시위를 한다." 그리고 시위 현장에서도 시위가 본질이 흐려져 가고 있


香港獨立
HONG KONG
INDEPENDENCE

었다. 평범한 시민들의 발언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각종 시민단체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연설을 하고 있었다. 똑같은 시위 현장의 모습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 또한 달랐다. 과격 시위에 '다친 의경과 의경의 강경진압에 다친 시위 참가자의 모습' 어느 것이 진실에 더 가까운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역사학도로서 진실을 보고 싶었고 연단에 서는 사람들, 평론가,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아닌 일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순수한 추모로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변모해가는 시위에 지쳐갔고 외면했다.
그러나 2016년 JTBC 태블릿 보도로 촉발된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은 참기 어려웠고, 다시 거리로 나갔다. 많은 시민들이 나처럼 분노했는지 이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는 누적인원 1600만 명이 넘게 참가하였고 결국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헌법 1조의 힘과 평화적인 정권교체도 대단한 사실이지만 아이와 함께 시위에 참여한 부모들의 모습이 더 놀라웠다.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강경시위와 컨테이너로 벽을 만들고 물대포를 발사하고 강경진압이 벌어졌던 현장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다. 시위에 참여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하나였다.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법에 의해 정치를 하는 것. 물론 모든 사람이 바란 건 아니었다. 그 현장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념의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집회가 시위가 있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거의 훼손되었고, 이념의 프레임만 남아 있었다.

"좌파 빨갱이"
"보수 꼴통"

이후 일어난 대부분의 시위 현장에는 이 같은 프레임이 씌워졌고 정치인들이 이를 이용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은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에도 씌워졌다. 나와 다른 생각 의견은 빨갱이와 꼴통으로 몰아간 채....

시위는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각국의 봉쇄와 거리두기 조치 강화에도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시위의 본질을 찾고 싶었던 나는 수많은 시위 중에 도 우리나라와 가까운 홍콩에서 일어난 시위에 주목했다.

화려한 밤 밤거리와 1980년대~1990년대 초에 큰 인기를 끌었던 영웅본색, 패왕별희 등의 홍콩영화와 그 영화에 출현했던 성룡, 이연결, 장국영, 주윤발 정도가 내가 알고 있는 홍콩이었다. 그런데 2019년 6월부터 홍콩에서의 시위가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었다. 이유는 중국정부의 '범죄인 인도 법안' 때문이었다. 외국으로 도망친 용의자의 신변을 인도하는데 관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도 미국, 호주,


警民互毆
政權不久

인도, 중국 등 2020년 기준 78개국과 체결되어 있다.

그런데 홍콩에서 중국정부의 이 법안의 추진으로 홍콩의 시민들이 반발하였고 홍콩시위가 연일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뉴스를 통해 시시각각 보도되고 있었다. 6월 9일에 무려 103만 명이 참여한 시위가 계속되었다. 홍콩의 인구가 약 700만 명임을 가정할 때 홍콩시민의 7분의 1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였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200만 명 정도 였음을 고려할 때 엄청난 규모였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2019년 홍콩 행정부는 긴급조치와 복면 금지법 기습적으로 시행하였다. 1970년 박정희 정부의 유신헌법으로 수많은 긴급조치가 단행되었고 민주사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제약되고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

복면금지법도 시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다. 권력자들은 많은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힘과 권한이 권력자에 미치지 못한다. 권력자들은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복경찰들을 집회에 투입시켜 많은 시민들을 조사하고 연행하는 모습은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거쳐 오늘날에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결국 홍콩 행정부의 이 조치들은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는 조치인 것이다.

돌이켜 보면 홍콩문화의 황금기는 1980년에서 1990년대 초였고, 이 이후 홍콩의 문화는 급격하게 쇠퇴하였다. 이 시기는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홍콩이 반환되면서 당시 많은 민주인사와 재력가들이 홍콩을 떠나 제 3국으로 망명하였다. 홍콩시위의 본질은 홍콩의 역사를 찾아보는 것에서 시작했다.

홍콩의 역사는 184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 1차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청나라로부터 구룡반도(베이징 조약)를, 2차 아편전쟁에서는 홍콩(난징조약)를 얻었다. 그리고 1899년 신계 지구를 청으로부터 99년 임차하였다. 당시 영국은 영구히 할양받으려 하였으나 청은 미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과 국제정세의 힘의 논리를 이용하여 99년 임차로 변경하였으며 조약 말미에 'as good ad forever(영원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즉 정리하면 홍콩 섬과 구룡반도는 영국령으로 신계지구는 99년 임차를 하였던 것이었다. 이후 홍콩은 거의 방치되었지만 국공내전과 중국공산화로 인한 전쟁을 피하고 자유를 찾아 많은 중국인이 홍콩으로 몰려들었고 국제도시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99년 임차계획 건으로 인하여 영국과 중국이 협상에 나섰다. 당시 영국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는 신계지구 임차에 대해 15년 연장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청나라가 영국과 맺은 조약을 원천 무효라고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아편전쟁으로 체결된 베이징조약(1860년), 난징조약(1842년)과 구룡신계 조차(임대)조약을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즉 중국은 신계지역 임차기간이 끝나는 1997년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결국 영국이 홍콩을 모두 중국에 돌려주거나 홍콩을 지키기 위해 중·영 전쟁을 치루어야 할 상황이었다.영국 정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정부와 협상을 지속해 나갔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CAPTAIN STAG

당시 홍콩의 상황을 보면 영국이 할양받은 홍콩섬과 구룡반도는 도심으로서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며 이를 보완할 지역으로 신계지역의 점유가 필요했다. 즉 신계지역이 중국에 반환되면 홍콩의 자립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었다.

결국 영국은 1894년 12월 19일 '중영공동성명(홍콩 문제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정부의 공동 성명)'을 체결하여 많은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었다. 당시 중영공동성명의 큰 틀은 영국정부가 홍콩지역을 중국에 반환하되 중국정부는 일국양제(1국가 2체제)로 홍콩을 통치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는 미국의 자유진영과 소련의 사회주의의 대립이 절정을 이루었던 냉전시기로 홍콩의 반환이 홍콩의 공산화를 의미하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진영이 개입할 명분이 생기자 당시 중국의 주석 덩샤오핑이 내놓은 묘책이었다.

즉 홍콩에 민주주의(정치)와 자본주의(경제) 체제를 2047년까지 50년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서 홍콩에는 중국의 사회주의체제 및 헌법 등이 적용되지 않고 홍콩 내의 홍콩 기본법과 형법이 적용되게 되었으며 홍콩의 행정수장 또한 당서기 및 성장이 아닌 행정장관이 되었다. 홍콩은 이렇게 약 100여년 만인 1997년 7월 1일 중국령으로 귀속되었다.

이렇게 홍콩은 중국으로 귀속되었지만 2047년까지는 기존의 체제에서 삶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반환 이후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주석으로 변화되면서 중국공산당은 일국양제를 무시한 채 홍콩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범죄인 인도법안으로 인해 반환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발생하였다.

'범죄인 인도 송환법'은 단순한 사건이 배경이 되었다. 2018년 대만을 방문한 홍콩인 커플의 불화가 발생하여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주하였고 대만은 이 남성의 송환을 요구한 것이 그것이다. 하나의 중국을 추구하는 중국정부의 방침에 따라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조약 존재하지 않았다. 홍콩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려는 중국정부는 이를 빌미로 당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통해 해당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을 제출하게 하였다.

여기까지만 보면 당연한 홍콩의 민주화와 크게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문제는 중국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인사들이 홍콩으로 망명해 있다는 것이었다. 애당초 대만과 홍콩과의 문제지만 이 송환법에는 중국대륙을 교모하게 끼워 넣었고, 홍콩 행정장관의 판단으로 송환여부가 진행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문제는 이 행정장관이 우리나라 4~5공화국의 선거처럼 대표인단에 의해 선출되고 중국정부의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임명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공산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이 법은 해석하기에 따라 홍콩에 거주하는 민주화 인사를 반분열국가법 위반을 근거로 중국에서 송환을 요구할 경우 홍콩 행정장관의 명령으로 중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정부가 중국과 홍콩의 민주화 인사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일국양제의 홍콩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인 것이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린다면 홍콩에 입주한 수많은 기업이 홍콩을 떠날 것이고 이는 홍콩의 경제에도 큰 타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홍콩시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방식으로 중국 내 수많은 민족·독립 운동을 탄압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티베트의 독립운동, 신장 위구르 지역의 독립운동,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연관된 동북공정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에서 동북공정은 중국의 역사왜곡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역사왜곡 수준이 아닌 중국내 조선족 탄압과 향후 북한에 대한 문제도 담고 있다. 중국은 수많은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로 이들 민족은 자치와 독립을 요구한다. 그러나 문제는 티베트, 위구르, 조선족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티베트지역과 신강지역은 지하자원도 풍부할 뿐 아니라 중국이 지향하는 일대일로의 중심지역이다.
그리고 조선족이 차지하고 있는 연변지역은 향후 남북의 관계, 러시아와 관계 등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최근 중국내 조선어 학교에서 그동안 써왔던 '한어' 교과서를 금지하고 인민교육출판사가 편찬한 통일 '어문' 교과서를 사용해야는 지침이 내려졌다. 풀이하면 조선족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 서술되어 있는 교과서를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조선족 문화의 말살인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이중 언어 교육을 강조하기는 하였지만 중국어 실력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선어(한국어)는 소멸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02년 우리나라에서 대두된 동북공정은 결국 이렇게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말살하려는 수순이었던 것이다.

동북공정이 그랬듯이 홍콩의 '범죄인 인도 송환법'은 결국 홍콩을 탄압하고 중국의 민주화를 탄압하는 시작인 것이다. 홍콩 시위의 주요 참여자를 보면 1990년대 생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경제적으로는 중산층과 서민층이 천체의 92%를 차지하였다.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고학력자와 청년층이 많이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시위대와 홍콩의 민주주의 인사들이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의 완전한 철회
2. 홍콩시위대에 폭도지정철회
3. 홍콩 경찰의 시위대 무력진압에 대한 정식 사과 및 독립적 조사위원회 설치
4. 체포된 시위대의 전면 석방
5.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및 홍콩 입법회 보통선거/평등선거 실시
이 요구들은 우리나라가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 우리나라 민주화를 상징하는 모든 집회·시위에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집회인 것이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이 5대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개리 람 홍콩행정장관은 이 당연한 권리의 집회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최류탄과 고무탄을 발사하는 등 강경


eye for
an eye
If we burn
you bu th us

하게 진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압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참여자는 계속 늘어났고, 미국과 프랑스 등 강대국에서도 중국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중국 정부가 검토하던 이 범죄인 인도법 조약은 2019년 9월 4일 공식 철회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 방침을 가하고 있으며, 민주화 인사를 각종 협의를 씌워 체포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날치기 통과될 경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다. 정부의 강경진압과 탄압이 계속되면서 일부 시위대가 이에 대응하여 화염병을 던지거나 자경단원을 공격하고 있고 경찰은 비무장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점은 강대강 대립이 지속될 경우 중국군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7월에 발생한 우루무치 소요사태를 참고할 수 있다. 신강 위구르 자치구의 주도인 우루무치시는 소수 민족인 위구르족이 많이 사는 도시이다. 우루무치의 소요사태는 한 장난감 공장에서 해고당한 한족 노동자가 앙심을 품고 위구르인 노동자가 한족 여성을 성폭행하였다는 루머를 퍼트렸고, 이를 오해한 한족 노동자들이 위구르인 노동자를 공격하여 사망하게 된 사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위구르인들은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으나, 오히려 평소 위구르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한족은 쇠파이프와 강목으로 위구르인이 운영하는 점포를 파괴하고 약탈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구르족과 한족이 유혈 충돌하게 되었고 중국정부는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을 차단한 뒤 2만 명의 공안과 군을 동원하여 강경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당국이 위구르족 시위대에 실탄까지 사용하여 사살하였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족이 문제를 일으키고 한족의 시위가 더 강경했지만 중국정부는 오히려 위구르 인을 강경하게 탄압하고 있다. 재교육수용소를 세워 위구르인을 강제로 수용시키고 있으며, 공무원을 위구르족의 집에 거주하게 하여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억압을 지속해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혈사태가 일어나기 1년 전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폐회식 공연에서 중국내 56개 소수민족을 동원하여 화합하는 공연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군을 통한 강경진압은 1회성에 그치지 않았다. 그 전에도 중국정부는 티베트를 강경하게 진압하였다. 1950년 중국정부는 티베트 달라이라마 정부와 달라이라마의 권한과 지위를 인정한다는 협의를 하였으나, 달라이 라마의 종교가 절대적인 티베트에서 중국은 반종교 정책과 같은 공산화 정책을 지속하였고 티베트가 이에 반발하자 1959년 군대를 동원해 티베트를 무력 굴복시켰다. 흔히 '라싸 사태'라고 불리는 시위였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홍콩의 시위와 우루무치, 라싸의 시위가 각각 민주화 요구와 민족적 독립·자치 요구 시위라는 점에서 차이는 있으나 지금까지의 중국정부의 행태를 살펴보면 군의 개입도 부정할 수는 없다. 민주화 시위에 국한해서도 2008년 중국의 민주화 시위인 '천안문 사태' 때도 중국정부는 군을


RIGHT THE WRONG

동원해 강경하게 진압하였으며, 코로나19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리원량 의사도 중국공안의 끊임없는 감시를 받았다.

다행인 것은 많은 홍콩시민들이 평화적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폭력적인 모습을 볼 수 없으며,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등 평화적 시위가 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홍콩시위에 있어는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언론사가 홍콩시민의 시위를 응원하고 있다. 다시 말해 홍콩시위의 본질은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인 것이고, 중국정부가 홍콩에 반환될 당시 했던 약속(일국양제)를 지키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집회는 그 동안 시위 자체의 순수한 본질을 잃어버린 채 좌우의 이념대립으로 비화된 면이 있다.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요구보다는 일부 강경 단체의 정치적 요구로 비화되어 보수꼴통과 좌파 빨갱이로 변모된 면이 없지 않다. 민주사회에서의 정당한 정치참여인 집회와 시위는 올바른 정보를 토대로 한 그 본질을 볼 때 시민의 바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요구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우리나라의 2016~17년에 일어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촛불집회처럼 평화적인 해결이 이루어내기를 기원해본다.

참고문헌,

(논문)
김재기, 「티베트의 중국으로부터 분리독립 운동의 기원과 전개」, 『대한정치학보』 13, 대한정치학회, 2006.
김태만, 「《아편전쟁》과 홍콩, 그리고 21세기의 중국」, 『오늘의 문예비평』, 1997.
박광득, 「홍콩 민주화 시위와 일국양제의 전망에 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 22, 대한정치학회, 2014.
손인주,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의 기원」, 『한국정치연구』 29,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0.
신원구, 「2019 홍콩 시위의 특징과 일국양제 위기론에 관한 고찰」, 『아시아 연구』23, 한국아시아학회, 2020.
우덕찬, 「위구르 분리 독립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그 실상」, 『내일을 여는 역사』39, 2010.
유영수, 「2019년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인권정치학의 재이론을 통해 본 중국의 행동」, 『한국과 국제정치』 3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9.
윤민우, 「위구르 민족문제와 테러리즘, 그리고 중국의 국가테러리즘」, 『시큐리티연구』45, 한국경호경비학회, 2015.



윤영도, 「홍콩 레논 벽과 포스트 잇, 그리고 정동정치」, 『중국문화연구』 46, 중국문화연구학회, 2019.
이민자, 「2008년 티베트인 시위를 통해 본 중국의 티베트문제」, 『현대중국연구』 11, 현대중국학회, 2009.
(기사)
박민희, 사라진 위구르 인들…중국판 테러와의 전쟁, 『한겨레』, 2020년 9월 11일자.
박석원, 홍콩 시위 촉발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YTN』, 2019년 6월 13일자 기사.
월간조선, [긴급진단] 점입가경 신장위그르 사태 -반무슬림 정서, 반중운동의 구심점 결여로 한계, 『월간조선 뉴스룸』, 2009, 8월호
유완준, 홍콩정부, '범죄인 인도법' 공식 철회.. 시위대 다른 4개 요구사항은 거부, 『동아일보』, 2019년. 9월 4일자.
이재덕, [정리뉴스], '미군 장갑차 사건' 일지…14살에 숨진 효순·미선이, 15년 지나도 못푼 원한, 『경향신문』 2017년 6월 13일자.
이재우, 홍콩 '범죄인 인도법' 무기 연기 됐지만, 위기의 일국양재' 『뉴시스』, 2019,년 6월 16일자.


THE ESPLANADE
KFC
Sasa
Sasa
POLICE


HONG
KONG

제작 오 종 원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콩여행기

본 자료집은 2020년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시각예술) - 전시사전연구지원을 받아 사업명 〈당신의 밤, 나의 새벽〉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집 내 모든 저작권은 오종원에게 있습니다.

자료집 원고에 도움을 주신 광주 바림의 강민형 기획자, 인도박물관 박원식 학예부장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 외에도 많은 자문과 조언을 해주신 분들, 광주와 홍콩 등에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O Jongwon, 2020


PRESS
IDENTIFICATION CARD
Researcher
OH Jongwon
Pighead Lab
Duguvy Research Group
of social and cultural
KOREA